

# LG 특허권 2만9000개 중소·벤처기업에 푼다

## 충북 오창에 창조경제센터 전자·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

4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읍을 들어서만 2번째 창조경제 현장 방문이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오창 충북지식산업원에서 '바이오·화장품·뷰티·친환경에너지 혁신 충북창조경제, 희망찬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출범식에서 박 대통령은 뷰티존, 상생존, 에너지존 등 주요 기능을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곳 센터를 주도한 LG그룹은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현재 보유 중인 특허 3000여건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총 2만9000여건의 특허를 유·무상 방식으로 개방키로 했다.

특히 LG그룹은 친환경 주거공간을 창조하는 제로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LG화학 등 계열사를 통해 충북 지역에 향후 3년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포함됐다.

또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LG의 기술과 접목해 K-뷰티, K-바이오, 제로에너지 분야의 스타 중소기업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IP(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특허 문제로 신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한편, 충북 지역의 특화산업인 뷰티·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에서 스타 중소기업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1개 기관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 61건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김의중 기자 zerg@

## 워크아웃 졸업 금호타이어 10년만에 '구인광고'

금호타이어가 2005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생산직 채용에 나선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6~11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신규 생산직 직원 100여명을 모집했다. 지원서 접수 이틀 만에 응시자가 8000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와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직업훈련생(채용예정자)'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직업훈련생 과정은 생산공정교육(1개월)과 현장실습(2개월) 등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현장실습을 완료한 이후인 5월 말 있을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인사팀 관계자는 "광주와 곡성 공장의 인원 확충을 위해 10년 만에 대규모 생산직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규직 선발은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년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무자들이 쉬는 날 잔업을 해야 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곡성 공장 관계자는 "100여명을 선발해 실습 등 실무 테스트를 거쳐 통과한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부터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난해까지 대규모 생산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직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호타이어의 광주·곡성·평택 등 국내 공장의 생산직 직원 4200명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 넘는다. 이 회사의 관리직 연봉이 50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할 때 2000만원 가량 높다. 이는 경쟁사인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등 경쟁사보다도 2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 회사는 경영악화로 2009년 12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5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루  
한 생각

立春大吉(임춘대길)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기를

▶ 14면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대토론회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제운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범금융 대토론회, 뻔한 질문 뻔한 대답...

# 공염불에 그친 '108번뇌'

(금융계 인사 108명 참석)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금융당국 수장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2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범금융 대토론회가 전시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 기술금융, 핀테크(IT+금융) 활성화 등 정부 주도 정책과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면서 재탕, 삼탕의 토론회라는 지적이 다.

특히 금융당국이 바쁜 일정의 금융권 CEO들을 한 데 모아놓고 개혁과 혁신을

그동안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금융규제 완화, 과도한 감사 개선 등 뻔한 주제였으며, 금융당국의 답변도 '변하겠다' '개선하겠다' 등 뻔한 답변이었다. 또 핀테크,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 등 연초 금융위, 금감원이 발표한 사업계획 외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발언권이 와도 너무 짧은 시간이 안배된 상황에서 CEO들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허심탄회하게 못 했다는 참석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CEO가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 속도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의 구체적 답변을 외면한 채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창조금융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핀테크와 기술금융에만 열매이다 보니 초저금리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금융권 CEO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것이다.

## 기술금융·핀테크 등 주요외제 '정책설명회 갈더라' 반응 썰렁 당국의 잇단 보여주기식 행사 '전시행정의 전형' 불만만 키워

논하기보다는 정책설명회를 방불케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6시간 동안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제운 위원장과 진웅섭 원장, 6개 금융협회장과 주요 금융회사 대표를 비롯해 총 108명이 참석했다. 사상 처음으로 금융계 CEO가 모두 모여 난상토론을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 숫자처럼 '백팔번뇌'를 연상시켰다. 토론회 내용은

사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으로 이뤄졌다. 금융권 CEO들과의 브레인 스토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급하게 일정이 공지되고, 준비 기간이 충분치 못했다. 생산적 결론보다는 구세 막치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토론회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투자자대회'도 마찬가지다. 증권 유관기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금융투자업계 임원별 CEO 및 임직원 1000여명이 모였다.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의 구두 지시와 흡사한 이런 행사를 위해 전 임원 CEO를 한 데 모으는 것은 정부 주도의 평가대회로 정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기자 acw@

## 임춘에 찾아온 미세먼지



4일 봄의 기운이 일기 시작한다는 절기 임춘을 맞았다. 이날 날씨는 포근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공기는 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이 뿌연 하늘 사이로 마스크를 쓰고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골프'가 일냈다



## 지난해 7238대 팔려 전년대비 24% 신장 수입차 최초로 국산차 누르고 동급모델 판매 1위

폭스바겐의 '골프'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의 같은 차급 모델을 누르고 최다 판매 모델로 올라섰다. 특정 차급에서 수입차가 국산차 판매량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골프의 2014년 판매량은 전년대비 24% 늘어난 7238대로 집계됐다. 반면 동급 경쟁 차종인 현대

대자동차의 'i30'은 6644대 팔리는 데 그쳤다. 2007년 출시 이래 처음으로 내수 시장에서 골프에 밀린 것이다.

작년에 출시 40주년을 맞은 골프는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이 차량은 최고 18.9km/ℓ에 달하는 연비와 민첩한 주행 성능이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판매 대수를 늘려 왔다.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도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관측행사와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면서 지난해 누적 판매 3만대를 돌파했다.

반면 유럽형 전라모델로 개발돼 2007

년 7월 처음 시장에 나온 i30은 해치백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2012년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출시 이듬해인 2008년(3만127대)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2만5607대), 2010년(9162대), 2011년(4359대), 2012년(1만5393대), 2013년(1만409대)에 이어 작년에는 1만대에 못 미치는 부진을 겪었다.

한편, 현대차가 올해 초 i30 신형을 내놓으면서 골프와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i30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절 모델의 연비를 골프 1.6 TDI 연비(18.9km/ℓ)에 근접한 17.8km/ℓ까지 끌어올리고 디자인을 개선한 신형 i30을 출시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10대그룹 중 임원 퇴직연령 가장 낮은 곳은 LG

국내 10대 그룹 임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5년이며, 55세 이전에 퇴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EO스코어는 4월 10대 그룹 96개 상장사 임원 중 2015년도 정기 인사에서 퇴임하고 자사주를 매도한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임 임원의 평균 나이는 54.5세, 재임기간은 5.2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부회장까지 지나다 퇴직한 임원의 재임기간이 12년으로 가장 길었고, 부사장 9.1년, 사장 8.7년, 전무 7.4년, 상

무 3.9년 등의 순이었다. 평균 퇴직 연령은 상무(이사)가 53.5세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사장 55.8세, 전무 56.2세, 사장 58.7세, 부회장 63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 퇴직 임원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LG로 51.4세였다. SK가 52.2세로 2위, 롯데(52.6세)와 한화, 삼성(각 53.6세)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57.1세), 포스코(57세), 현대자동차(55.2세), 한진(54.3세)은 퇴직 임원 연령대가 높았다.

정효진 기자 js62@

| 10대그룹 상장사 임원<br>5.2년 재임하다 54.5세에 퇴임 |      |       |
|-------------------------------------|------|-------|
| 10대그룹 상장사 임원 재임기간·퇴임 연령             |      |       |
|                                     | 재임기간 | 퇴임 연령 |
| 부회장                                 | 12년  | 63세   |
| 사장                                  | 8.7년 | 58.7세 |
| 부사장                                 | 9.1년 | 55.8세 |
| 전무                                  | 7.4년 | 56.2세 |
| 상무                                  | 3.9년 | 53.4세 |

※출처 : CEO스코어

| 그룹별 임원 퇴직 연령·재임기간 |      |       |
|-------------------|------|-------|
|                   | 재임기간 | 퇴임 연령 |
| LG                | 8.1년 | 51.4세 |
| SK                | 4.9년 | 52.2세 |
| 롯데                | 5.0년 | 52.6세 |
| 삼성                | 5.7년 | 53.6세 |
| 한화                | 6.3년 | 53.6세 |
| 한진                | 3.6년 | 54.3세 |
| 현대자동차             | 4.3년 | 55.2세 |
| 포스코               | 3.4년 | 57세   |
| 현대중공업             | 5.2년 | 57.1세 |



Money

수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금융 복합점포가 뜬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지분 10% 넘어서 GS 4세, 승계 시동?

주식담보대출로 1천억 마련  
작년 주가 약세에 대거 매입

허윤홍 등 7명 998만1091주  
지주사 GS 주식 10.73% 보유

사촌·직계별 보유 지분 일정  
가족간 후계구도 합의 관측

| GS그룹 오너가 4세 GS주식 변동 |          |          |          |                 |          |          |          |
|---------------------|----------|----------|----------|-----------------|----------|----------|----------|
| 오너가 4세 2014년 2월     |          | 2015년 2월 |          | 오너가 4세 2014년 2월 |          | 2015년 2월 |          |
| 허서홍                 | 61만649주  | →        | 70만5649주 | 허진홍             | 22만7494주 | →        | 29만2144주 |
| 허원홍                 | 38만4551주 | →        | 45만478주  | 허태홍             | 28만3240주 | →        | 33만6590주 |
| 허윤홍                 | 40만4468주 | →        | 45만7078주 | 허정홍             | 32만1000주 | →        | 33만1000주 |
| 허주홍                 | 34만6282주 | →        | 39만9462주 |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   |          |          |          |



허윤홍 상무

GS그룹 4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본지 취재 결과 GS그룹 오너가 4세들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이 최초로 10%를 넘어선 것. 특히 지난해부터 오너가 4세들이 주식 담보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 3세들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GS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시점에 4세들의 매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4세대 승계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면 GS그룹 오너가 4세들의 지주사인 GS의 지분이 최근 1년간 1%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1일 기준 허윤홍 GS건설 상무 등 오너가 4세들이 보유한 GS 주식은 998만1091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1일 기준 928만2222주와 비교해 69만8869주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오너가 4세들의 GS 지분율은 지난해 2월 9.98%에서 올 2월 10.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가 4세들의 지주사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오너가 4세들은 지분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허창수 회장이 공시한 GS에 대한 최대주주 측 지분 현황과 관련, 계약 현황을 보면 허윤홍 상무 등 오너 4세들이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GS 주식은 402만2613주로 전체 보유 주식의 40%를 웃돌고 있다. 일반적인 주식 담보율 50%와 GS 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면 그룹 4세들은 최근 2년간 주식 담보대출 등을 통해 900억~10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1년간 4세들이 취득한 GS 주식의 평균가를 감안한 매입 금액도 300억~500억원에 이른다.

최근 1년간 지주사 주식을 가장 많이 사

들인 4세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38)씨다. 서홍씨는 최근 1년간 GS 주식 9만주를 사들이며 지분율을 0.66%에서 0.76%로 높였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 허원홍(21)씨도 1년간 GS 주식을 7만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아들 허진홍(30)씨도 7만주 정도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높였다. 허창수 그룹 회장의 아들 허윤홍 상무는 5만주를 늘리면서 GS 주식을 보유한 4세 21명 중 6번째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허창수 회장 3세 일가의 직계 존속별 4세들이 일정하게 GS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촌 간 직계별 주식 보유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직계 일가에서는 지난해 GS의 주가 약세 속에 4세들의 지분 취득과 거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미래의 승계구도에 대한 가족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의 지분은 쉽게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 점과 GS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점을 보면 4세들의 지분 취득이 늘어난 것은 향후 승계 구도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사외이사를 ‘계열사 임원’으로…

## 현대리바트 ‘편법 공시’ 논란

윤병춘·김철수·박정인 등 3명  
2년간 분기보고서 표기 오류  
대표 서명도… 경영관리 허점  
‘사외이사의 독립성’ 의혹까지  
회사측 “단순 오타일뿐” 해명

고서부터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까지 총 8개의 보고서에서 사외이사와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계열사 임원’이라고 표기했다.

대표이사의 확인과 서명까지 받은 보고서에 실수로 회사가 법의 위반 사항을 적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은 실수를 2년 동안 반복해 온 것은 경영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병춘 전 하이투자증권 전무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내놔다. 당시 윤병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갖춰야 할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선임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코스콤에 따르면 현대리바트 지분 2.12%를 보유하고 있던 알리안츠글로벌 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주총에서 윤병춘 사외이사의 선임에 반대해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측은 “윤병춘 사외이사는 하이투자증권 전무로 재임 중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대백화점 무보증 일반사채를 인수했다”면서 “현대리바트는 최대주주가 현대그린푸드로 기업집단 현대백화점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열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하이투자증권의 임직원인 윤병춘 전무는 사외이사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조승에 기자 sysy@

## ‘삼영화학’ 이석준 회장, 지분을 줄어든 까닭은

필름 전문업체…최근 실적부진  
직원 사기진작 10억원어치 증여  
지분율 14.41%→12.45% 감소

‘기부왕’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나눔경영 ‘부전자전 행보’ 눈길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은 3일 보유 주식 66만6660주(1.96%)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했다. 주당 1500원가량으로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지분은 기존 14.41%에서 12.45%로 감소했다.

삼영화학 측은 이번 주식 증여에 대해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종업원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의 이번 증여가 눈에 띄는 이유는 최근 삼영화학이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삼영화학은 지난 2013년 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삼영화학은 필름 포장재(식품 및 공업용 포장재)와 국내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콘텐츠용 필름 전문 제조업체로 최근 필름시장의 공급과잉 및 수요정체 상황 지속으로 가격 경쟁이 과열되는 모

습을 보이면서 실적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필름 포장재시장 역시 국내 경쟁사들의 설비 증설에 따른 과잉공급과 중국의 저가 수입공세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삼영화학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된 2013년 삼영화학을 물려받은 이 회장은 실적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제까지 털어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사주조합에 증여된 주식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230명의 직원에게 각각 분배할 예정”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 규모 자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건강한 수돗물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K-water의 새로운 약속  
지금 시작합니다



###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물, K-water 프로젝트

#### Smart Water Grid 인프라 구축

Smart Water Grid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적된 차세대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K-water는 SWG를 구축하여 물의 생산과 수송의 전 과정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인체에 이로운 건강한 물 생산

의료계와 협업으로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된 물을 생산하여 좋은 물의 맛을 찾아내고 인체에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Total Care Service 채택

수돗물 품질 확인제, 욕내 배관 내시경 탐사, 배관 세척 및 교체 등을 통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K water**  
대한민국이 마시는 건강한 물



1%대 수익공유형 VS 2%대 고정 만기분할... 주택대출 어디가 유리?

# 새집 장만할 땐 ‘수익공유’... 오래 살 계획이라면 ‘고정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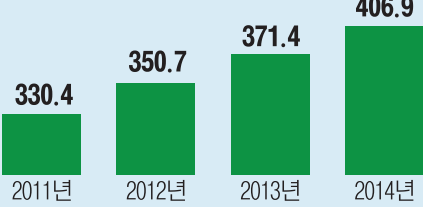


3월 출시 예정 주택담보대출 비교

| 구분 | 1%대 금리 수익 공유형                   | 2%대 고정금리 · 분할상환                    |
|----|---------------------------------|------------------------------------|
| 금리 | 최초 7년 1%대...이후 변동금리 적용          | 2.8~2.9%...20년간 고정금리               |
| 특징 | 7년 뒤 집값 상승분에 대해 지분을 따라 은행과 수익공유 | 이자소득공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br>신규대출자 해당 안됨 |

급증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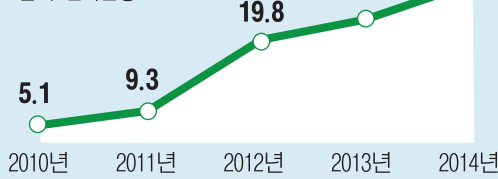
단위: 조원, 연말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단위: %, 연말 기준

※출처: 한국은행



## 은행 분할상환 금리 비교해보니

# 기업 3.17% 최저... 수협 3.75% 최고

기업은행이 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수협과 우리은행이었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은행 중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연 3.17%(지난해 12월 기준)였다. 이는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우리은행보다 0.34%p나 낮았다.

반면 가장 높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연 3.75%에 달했고,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도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연 3.84%를 나타냈다.

다음 달 중 출시 예정인 분할상환 전환대출은 2.8~2.9%의 연 이자율이다. 분할상환 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우리은행 일시상환식 주담대 고객들은 연간 200만원 이상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2억원을 연 3.84%의 금리에 대출받았을 때 한해 내는 이자는 768만원에 달하지만, 연 2.8%에 대출받았을 때는 560만원이라 208만원을 아낄 수 있다.

수협은행에 이어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연 3.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은행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 은행   | 분할상환식 | 일시상환식 |
|------|-------|-------|
| 수협   | 3.75% | 3.66% |
| 우리   | 3.51% | 3.84% |
| 대구   | 3.44% | 3.75% |
| 제주   | 3.41% | 3.52% |
| 농협   | 3.40% | 3.65% |
| 외환   | 3.26% | 3.69% |
| 한국SC | 3.24% | 3.87% |
| 산업   | 3.23% | 3.54% |
| 한국씨티 | 3.23% | 3.30% |
| 기업   | 3.17% | 3.39% |

※출처: 은행연합회, 2.3 공시(12월 말기준)

(연 3.44%), 제주은행(연 3.41%), 농협은행(3.4%) 등 순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연 2%대 후반 대출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 전환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각 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 은행 LTV 완화에 2금융권 대출실적 ‘뚝’

2금융권이 지난해 8월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가 완화되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대출한도가 증가한다. 더욱이 오는 3월 연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더 위축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누적 실적이 지난해 3월 9800억원, 6월 9200억원, 9월 7700억원으로 6개월간 2100억원이나 줄었다. 주택담

보대출은 안정적 대출자산이지만 LTV 규제 완화 이후 은행권으로 급속 이탈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LTV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액은 800억원으로 1~7월 월 평균 신규 대출액인 3500억~4000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고객 이탈이 지속될 것”이라며 “실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보다는 만기 때 은행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4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난해 2억원의 대출(변동·일시상환)을 받은 A씨는 최근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 출시되는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대출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아무리 따져봐도 모르겠다. 금리만 본다면 당연히 1%대 수익공유가 유리하겠지만 7년 뒤에는 은행과 집값 상승분을 나눠야 한다고 하니 머뭇거리진다. 그렇다고 대출대출로 갈아타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갈 게 걱정이다.

다음달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대출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주택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신규주택 구입을 희망하거나 주택처분 시기를 7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라면 1%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하다. 소득 제한이 없고 공시가격도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102㎡ 이하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 상품은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로 1680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평균금리(3.5%)로 대출받았을 때와 비교한다면 최대 3220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

그러나 7년 뒤에는 변동금리(코픽스+가산금리)로 전환된다. 금리상승 리스크를 다시 떠안는 것이다.

### 1%대 수익공유

이자부담 낮지만 7년후 변동금리

집값 상승분 절반 은행과 나눠야

### 2%대 고정분할

만기부담 없고 중도수수료 면제

‘이자·원금 함께’ 月 부담액 늘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집값이 7년 뒤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면 은행과 지분율(5 대 5)에 따라 5000만원씩 나눠야 한다. 집을 팔든, 팔지 않든 6개월 내 은행에 돈을 줘야 한다. 당장 내줄 돈이 없다면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은행과 수익 정산 후 집값이 떨어졌다면 이 중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소득 제한이 없어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득 9~10분위 전세 수요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환 시기를 20년 정도 장기 계획하고 있다면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대출이 더 적합하다.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억원 이내로 빌릴 수 있고 신용등급이 1~8등급이라면 대출 가능하다.

이 상품 역시 금리 매력이 크다. A씨가 변동금리·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매달 58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 때는 2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20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억4000만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늘어난다.

그러나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규모는 6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20년 뒤 2억원을 한 번에 낼 필요도 없어 만기 부담이 없다. 1000만원 가량의 이자소득세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0만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야하기 때문에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A씨는 라면 매달 109만원씩 갚아나가야 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2%대 장기 분할상환대출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고른다면 이자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Beyond the First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8626(2014.12.30~2015.12.29)

## 국내최대증권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과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는 것

업계를 리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미션이 생겼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과 함께  
국내최대증권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4년 9월 금융권 공시기준)

www.nhwm.com

NH투자증권







취업·대출·병력·학력 콤플렉스까지 ‘썩썩’

# 대기업도 당한 ‘인생 뽕삽질’

취업·대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 해주고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앙경찰서는 최근 1년간 인터넷을 통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졸업·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93장을 위조해주고 건당 30만~50만원,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문서위조를 의뢰한 ‘고객’ 제갈모(29)씨 등 8명도 공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출몰이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를 찾았다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의 사연은 취업부터 ‘학력 콤플렉스’까지 다양했다. 삼업계고 출신인 장예인 제갈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장예인 특별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는 이씨가 정교하게 위조해준 인문계고 생활기록부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격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점이 낮게 나와 고민하던 대학생 정모

(28)씨는 부모에게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씨에게 돈을 건네고 대학교 성적 증명서 위조를 의뢰했다.

‘조졸’ 학력이 콤플렉스인 정모(52·여)씨는 함께 계를 하는 계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씨에게 고교 졸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씨는 본인과 친구의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예비군훈련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특별한 그래픽 관련 기술은 없지만, 포토샵으로 원본 문서 상 이름과 숫자 등을 바꾸는 식으로 진위 구별이 힘든 정교한 위조서류를 만들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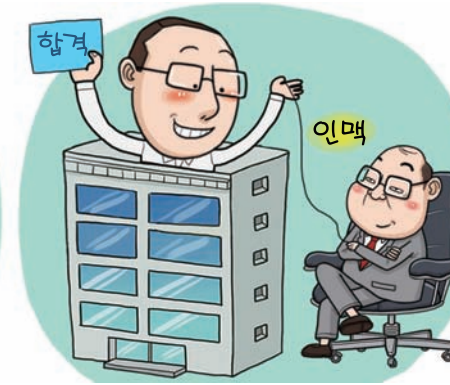
이씨는 공개 카페나 블로그에 다양한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글을 수시로 올려 의뢰인들을 꼬드쳤다. 그는 범행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작업한 서류는 복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건네



줘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사업 실패로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뢰인 수가 64명에 달한 다며 이들의 뒤를 쫓는 한편, 위조서류의 기관 제출 여부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무경력도 컴맹도 ‘의원님 아는사람’이면 ‘OK’

# 시의회도 눈감은 ‘연줄 갑질’



올해 처음 사무처에 시간제 임시직을 대거 뽑은 서울시의회에 무자격자들이 다수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시간제 임시직 라급(8급) 50명을 채용했고,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이들은 임시직이지만 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3000

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이 거의 없는 지원자들이 현직 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부적절하게 채용된 정황이 알려졌다. 채용 위탁을 맡았던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채점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 채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최저점을 받은 사람이 합격점으로 바뀐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지원자에게 합격점을 주거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무사 통과시킨 면접관도 있었다.

면접에서는 의원의 지인을 뽑기 위해 합격자에게 ‘애인 있느냐’, ‘자녀 학원비로는 얼마씩 지출하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탈락자에게는 ‘의원 행동강령을 외워보라’는 등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의장단 등 실제 의원들

은 지인 수명씩을 공무원에 합격시켰다. 현직 시의원의 딸로 임명조사관으로 채용된 A씨는 업무 경험은 전임 의장 시절 의장실 전화 응대가 전부다. 이렇게 채용된 합격자들은 임명분석 요원임에도 컴퓨터 기초도 제대로 모르거나, 담당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고서는커녕 기본적인 일도 부랴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채용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뽑은 직원들은 시의회 근무경력이나 컴퓨터 활용능력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위주로 평가했다”며 “현직 시의원의 딸을 포함한 합격자들은 모두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이완구 ‘삼청교육대 핵심說’ 박상옥 ‘박종철 치사 은폐說’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앞두고 떠오른 ‘5공禍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국무총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에게 전두환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전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황제특강’ 논란이 새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부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이 분과위는 ‘삼청계획’을 입안하고 불량배 리스트 및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보위 갑판기 전 사회

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청문회에서 각 행정부 실무자가 과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송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정규과목은 전혀 맡지 않고 단 6시간 특강만 했는데도 무려 600여만원을 받았다”며 ‘쟁거주기 거래’에 따른 황제특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국보위 내부 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이었고, 보국훈장광복장은 국보위 분과위 근무인력에 직제별로 전원 수여된 훈장의 조정에 해당했다”고 했다.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아 고문 수사관을 ‘봐주기’ 수사하고,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11일 각각 열린다. 이어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비행기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제9회 취학아동 건강마당이 3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가운데 한 어린이가 시력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초구 보건소가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관내 아동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의 시작을 위해 마련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1승 1패… 금호家 ‘형제의 난’ 6일 결판

상표권 소송 선고공판 열려

작년과 올해 법정 공방에서 1승 1패씩 주고받은 박삼구-박찬구 회장 간 ‘형제의 난’이 6일 판가름날 예정이다. ‘금호’라는 정통성을 놓고 겨루는 상표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것. 이에 금호석유화학-금호아시아나 그룹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4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양사의 상표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그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만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금호가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법적싸움에도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법정 공방에서 1승씩을 주고받았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형인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은 금호산업(원고)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약속을 이행하리”며 금호석유화학(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예정된 상표권 소송은 정통성 획득과 더불어 수백억원의 이용료도 걸려 있다. 상표권 소송은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대금 지급을 중단해 불거졌다. 앞서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이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정부 행정지도도 따르라더니…

기업담합 몰려 과징금 폭탄

기업들이 정부의 행정지도도를 따랐다가 가격담합 판정을 받아 지난 10년간 1조 2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은 법원 판결로 잘못 부과된 것이 인정돼 되돌려 받았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담합 심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30건의 사업행위에 대해 총 1조16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것만 6건에 총 과징금의 34%(인 3972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상당수도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 권장, 주의, 경고, 통고 등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일을 말한다. 구두에 의한 편의적인 이런 행정 행위에 호응했다가 담합 제재를 받는 일이 잦아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껴왔다.

실제 2010년 11개 소주업체들은 선도업체를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가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받은 뒤 2년 뒤 법원 판결로 납부명령을 취소받은 적이 있다. 이에 재계는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정책 당국의 행정지도도를 공정위가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주요 산업 관련 법령에 관한 행정 당국이 행정지도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 당국과 공정위, 사업자 3자 간 행정지도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한다면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음란 동영상 인터넷 유포 수천만원 챙긴 일당 적발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3천472편을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회원들에게 1편당 100~400포인트를 받고 판매,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웹하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조석래·현재현·윤석금 회장 사건 재판장 바뀐다

정기인사 시행 재판차질 불가피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새 재판장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문용선(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과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4부 재판장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당시 문 부장판사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해 재벌 총수의 잘못된 경영

재판장이 바뀌는 주요 기업인 사건

| <br>조석래<br>효성그룹 회장 | <br>현재현<br>동양그룹 회장 | <br>윤석금<br>웅진그룹 회장 |
|-------------------------------------------------------------------------------------------------------|-------------------------------------------------------------------------------------------------------|-------------------------------------------------------------------------------------------------------|
| 8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br>김종호 부장판사                                                                           |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발행 혐의<br>문용선 부장판사                                                                     | 1200억원 대 사기성 CP발행 혐의<br>문용선 부장판사                                                                      |

관을 꾸짖는가 하면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증인신청을 단호하게 외면하면서 실형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8000억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도 재판장이 바뀐다. 재판장인 김종호(48·21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을 준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석금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 신고리원전 2호기서 또 가스누출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원전 2호기의 터빈실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원전 출력을 낮추는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달 말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 질소·수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는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28분에 신고리 2호기의 터빈실 내 수소가압기에서 수소가스

가 새는 일이 발생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곧바로 누출 지점을 밀봉하고 원전 출력을 83%로 낮춰 운전에 들어갔다. 한편 운영기간이 만료된 월성 원자력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가스누출 사고까지 더해져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 기자 puri21@



# 국내선 꺾 막힌 ‘통합 하나銀’…해외선 속도낸다

국내에서는 노조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해외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지난 2일 중국 통합 하나은행이 본격 출범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중국 현지 통합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통해 3년 안에 2000억원의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스업·소액대출시장에도 진출해 오는 2025년에는 중국 내 외자은행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국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리테일 및 프라이빗뱅크(PB)업무, 외환은행의 외국환 및 대기업영업의 강점을 융합해 시너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존 하나은행 중국법인에서만 가능하던 인민폐 영업이 30개 영업망에서 모두 가능하게 돼 고객 편의성 증대와 현지화 영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자본금 증가로 대기업 마케팅 기회가 늘어나고 영업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3년 내 이익금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2025년에는 중국 내 외자은행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니 이어 中법인 출범  
리스·소액대출도 진출  
외자銀 톱5 진입 목표

“노조 동의없는 합병?  
회사 합병은 경영권  
대화는 계속 하겠다”  
김정태 회장 밝혀

중국 하나은행은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합작사 형태로 올해 안에 리스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대출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분행장을 중국인으로 교체하는 한편 중국인을 상임 이사회회장(동사장)으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 김한조 외환은행장, 권영세 주중대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동문표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 동사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

중국 현지영업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테일营业을 강화하고 한국계 은행 최초로 올해 안에 스마트폰뱅크 서비스와 다이렉트뱅크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날 난항을 겪고 있는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작업을 정면으로 돌파하

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합병을 진행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사간 합병은 경영권으로, 이것을 할 때 노조의 동의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가 앞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PMI(기업인수합병후 통합관리)가 중요

하다”면서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최근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비인가승인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져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 ‘산업위기 예측시스템’ 개발 신한銀, 국내 첫 발명특허

신한은행은 특허청으로 부터 산업별 위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산업위기 예측시스템(Industry Warning Board System, WBS)에 대한 발명 특허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총 7개월의 개발기간과 2년간의 검증을 통해 완성된 WBS는 4500개가 넘는 각종 산업지표와 업종별 여신데이터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부업종별로 산업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산업의 주요지표 중 제품 가격이나 시장 지표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이러한 변동성이 계절적 요인인지 또는 구조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수준인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여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게 된다.

김민지 기자 kimmj@

## IBK기업銀, 중소기업청과 통일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청과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체계적인 통일금융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통일 관련 기업에 최대 연 0.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발생이자 일부를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IBK통일대박기원통장’과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연 2.0%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자금대출’을 출시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절반 카드사서 신용강등 당했다

4년간 4626만명 중 46%  
1인당 평균 505만원 빌려

지난 4년간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1500여만명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용자 절반 정도를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4년 동안 국내 8개 카드사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수는 4626만명이며 이중 46.6%에 이르는 2295만명이 카드사 내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사 내부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외부 신용등급인 신용조회회사(CBS)의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회원도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 회원의 33.2%(1534만명)나

됐다.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233조 9766억원으로 1인당 505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각 카드사별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중복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카드사별로는 외환카드 이용자의 카드사 내부 신용등급 강등이 가장 많았다. 외환카드는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의 82.2%(154만명)가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다. 그 다음은 현대카드 62.6%(383만명), 신한카드 62.1%(738만명)로 외환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가 신용등급 강등 3관왕을 이뤘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카드 59.2%(257만명), 하나SK카드 56.0%(133만명), 삼성카드 32.2%(229만명), KB국민카드 32.1%(273만명), 우리카드 31.8%(128만명) 순이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 저축銀 대출, 소외계층 70%까지 감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소외계층은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대상자도 개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감면 대상 대출액은 3000억원 규모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 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원금감면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결정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원금감면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로 이자 감면 위주로 이뤄졌다.

금감원, 개인서 중기로 확대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되  
원금감면 제한적으로 허용  
최대 1500억규모 깎아줄듯

지난해 상반기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실적은 477억원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최대 1500억원의 원금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원금감면 범위, 지원자를 결정하기 때

문에 모럴해저드 우려가 있지만,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은 △개인 5억원→6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50억원 △중소기업(신설) 100억원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프리워크아웃 가능한 채권이 저축은행의 채무를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자·연체이자포함)이 무담보 5억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또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만 했다.

한편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또는 1개 저축은행 채무가 금융회사 총채무의 50% 이상인 고객이 저축은행의 개인·개인사업자 전체 고객 중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귀 기자 kkk@

## 우리은행·삼성증권 제휴 IT시스템·복합상품 개발

우리은행은 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광구 행장과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고객의 거래확대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각사의 거래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필요시 관련 IT시스템과 복합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합동 협의회를 통해 업무전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인 동반성장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 발상의 전환!

증권사 최초 금융상품 연계 체크카드  
**able i max Card**



금융상품과 체크카드가 만났다  
금융수익에 추가수익까지 쌓인다

※상기 수치는 해당 상품 가입에 따른 카드사용액 최대 적용률입니다

※상품별 최소가입금액 미만 또는 금융상품 가입금액을 초과한 카드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연6%로 월단위 적립(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참고)

**CMA형 금융상품형** CMA계좌의 수익률을 받고, 사용한 카드 실적에 따라 CMA 수익률을 또 돌려받는다(최대 세전 연 5%, 당월 사용실적 30만원 이상시)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받고,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캐쉬백을 또 돌려받는다

## 소득공제 30% 혜택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최대 40% 현장할인

특급호텔, 유명 레스토랑 등  
전국 50여개 제휴처 현장할인

## 수수료 무료 서비스

각종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전월실적 10만원 이상시 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0346호(2015년 1월 19일~2016년 1월 18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한도 1일 600만원, 월 1,000만원(카드별 관리) ※우대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참고

**현대증권**



# 취임4년 윤부근, 글로벌 가전 주도권 잡았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사장)

세탁기 1500만대 팔것… ‘액티브위시’ 최대 300만대  
‘프리미엄 가전’ 전략 적극중… 세계시장 1위 목표 순항

올해 취임 4년째를 맞는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의 취임 일성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TV에 이어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백색가전 부문에서도 세계 1위에 성큼 다가섰다. 윤 사장은 올해 글로벌 세탁기 판매 목표를 최대 1500만대로 잡으며 세계 가전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사장은 3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2015 삼성 세탁기 & 에어컨 미디어데이’에서 “올해 세탁기 목표 판매량은 1000만~1500만대 정도 수준”이라며 “이 중 올해 전략 제품인 ‘에벌빨래’ 기능을 갖춘 ‘액티브위시’ 세탁기는 200만~300만대로, 전체

세탁기의 20% 수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 증가한 공격적인 판매 목표는 올해 세계 가전시장 리더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윤 사장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목표 판매량을 달성할 경우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세탁기 시장 선두 자리도 넘볼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부문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글로벌 성장률(3% 전후)의 4배 수준의 성장을 이뤘다. 전 제품군이 두 자릿수 성장을 거뒀고 특히 세탁기는 국내 시장에서 17% 성장했다.

윤 사장은 2012년 삼성전자 가전사업을 책임지며 ‘2015년 가전시장 세계 1위’를 목



표로 내걸었다. 지난 2006년 34년 만에 삼성TV를 세계 시장 1위로 올려놓은 주인공이었던 만큼, 윤 사장이 백색가전에 ‘세계 1위 DNA’를 심을 수 있을지 안팎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기능을 높이고, 디자인을 고급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앞으

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감하고 국내외 프리미엄 가전 수요를 공략한 것.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내놓은 이른바 ‘윤부근 냉장고’로 불린 ‘지펠 T9000’은 높은 가격에도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이상 팔리는 신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해 초 선보인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세프컬렉션’은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8월 기준 미국 1200개 매장에 세프컬렉션이 공급됐다.

일렉트로룩스가 GE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가전시장 선두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도 또하나의 관심사다. 윤 사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가전사업이 추구하는 전략과 맞아 떨어지고, 필요로하는 기술이나 제품 관련 기업이 있다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lfy@

‘올레 유클라우드 비즈’ 이전 기업고객 요금할인



KT는 ‘올레 유클라우드 비즈’로 이전하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무료 및 1년간 10%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한다. KT 직원이 고객사 직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 벤처 1조8100억 투입  
ICT·바이오가 절반 차지

올 신규 벤처투자에 역대 최고치인 1조 81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신규 벤처투자 두 건 중 한 건은 ICT와 바이오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탈협회는 3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벤처캐피탈 시장동향과 올해 시장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신규투자 규모가 1조8100억원으로 지난해 1조6393억원보다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받는 기업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901건을 기록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1000개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활발한 조합 결성에 따른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창업 생태계 지원정책과 투자독려 등이 맞물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성준 기자 tiatio@

쿠팡 작년 거래액 2조 넘어

모바일 비중 70%… 133%↑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지난해 거래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로 인한 거래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70%를 넘었다. 모바일 거래액은 전년에 비해 133% 늘어난 수치다. 또 전체 트래픽의 80%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월 740만명의 사용자가 쿠팡 모바일 앱을 통해 쇼핑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연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 80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것에 비추했을 때, 모바일 쇼핑이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성재 기자 psi@

실적부진 락엔락… 김준일 회장, 구조조정 뚜껑 여나

국내영업 총괄 전무 퇴사  
중법인장도 잇따라 물러나

실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새해부터 제품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김준일 락엔락 회장의 칼날이 매섭다. 특히 최근 국내영업을 총괄했던 김광태 전무(등기이사)가 회사를 떠나면서 인력 구조조정의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닌지, 회사 안팎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4일 락엔락에 따르면, 삼광글라스 출신으로 락엔락 국내영업을 총괄 담당해왔던 김광태 국내영업본부 전무가 지난해 12월 말 회사를 떠났다. 실적 부진을 책임지고

몫을 댔은 것이란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삼광글라스에서 글라스락을 출시 3년 만에 국내 대표 유리 밀폐용기로 성장시킨 그는 락엔락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2년간 국내영업을 총괄 담당했다. 2014년 등기이사에도 선임되면서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 전무의 퇴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국 심천과 베이징 법인이 잇따라 퇴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급격한 중국 매출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인사조치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락엔락의 실적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한 1017억원, 영업이익은 87.4% 줄어든 22억원, 당기순이익은 92.8% 감소한 10억원을 기록했다. 김 회장이 제품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도 이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락엔락은 판매 중인 제품 4000여개 중 매출 비중이 5% 미만인 제품 700여개를 정리하고 있다.

락엔락 측은 “김 전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맞지만,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내실 강화 차원에서 제품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isa@

현대차그룹 인사옥  
가장 높은 ‘115층’은  
정몽구 회장 집무실



정의선 부회장은 114층

정몽구(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설 인사옥의 최고층인 115층을 집무실로 사용한다.

4일 현대차그룹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 태스크포스(TF)는 인사옥의 최고층을 정몽구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TF 내에서는 ‘115층은 너무 높은 만큼 정몽구 회장의 집무실의 층을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룹의 미래 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해 115층에 정몽구 회장의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장엄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때부터 집무실을 항상 사옥의 제일 위층에 마련했다. 이후 그룹의 1인자가 사옥의 최고층을 집무실로 쓰는 문화는 현대차그룹으로 이어졌다. 정몽구 회장은 양

재동 사옥 21층, 계동 사옥 본관 15층 등 가장 높은 층을 집무실로 쓰고 있다.

신사옥의 114층에는 정의선 부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제일 위층에는 최고위 경영자, 그 바로 아래층에는 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위치시키고 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양재동 사옥의 20층을 집무실로 쓰고 있다.

다만 114층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4로 끝나는 만큼, 113층에 정 부회장 및 그룹의 전략실이 위치할 수도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1996년 계동 사옥의 두 개 층을 증축할 때 최고층이 14층으로 끝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층 다음에 14층, 15층을 붙였다. 현재 계동 사옥에는 13층이 없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계 총수들은 집무실을 지을 때 창고의 방위와 층수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한다”며 “현대차그룹도 다각도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대우조선해양 “LNG선이 효자네”

친환경 차세대 운반선 1척 수주

작년 이어 가스선 강세 이어갈듯

대우조선해양이 2월 첫 수주도 LNG선으로 시작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스선 분야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억 달러 규모의 17만 4000㎥ 친환경·차세대 LNG 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LNG연료공급시스템이 장착된다. 이 시스템은 천연가스의 선박 동력화를 위한 연료공급장치와 운송 시 발생하는 손실률을 낮추는 재액화 장치(Partial Re-liquefaction System)로 구성된다.

해당 장치를 만디젤의 가스 분사식(ME-GI) 엔진과 결합해 선박에 설치할 경우, 자체비 절감은 물론 연료 효율을 기존보다 20%까지 높일 수 있다. 또 LNG 운반선의 평균 속도인 12노트(22km/h)로 운항할 경우, 하루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LNG선은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 오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과 동형의 LN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제공 대우조선해양

물질 배출량 또한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계약식에 참석한 고재호 사장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에 관련특허를 수출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기술은 전 세계 고객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경제성과 친환경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토대로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올해도 5척을 수주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LNG선 5척, VLCC 2척 등 현재까지 7척 12억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또봇의 힘’… 영실업 매출 44% ↑

지난해 1100억 달성

영실업이 매출 11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영실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1100억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EBITDA)이 80% 증가한 3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영실업의 실적 호조는 대표 캐릭터 또봇의 성공 영향이 크다.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완구는 ‘또봇 쿼트란’이다. 또봇은 지난해 전국 대형 할인마트와 완구 매출 상위 20위권 내에 9개 제품의 이름을 올렸다.

실제 또봇 매출액은 2012년 359억원에서 지난해 681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출시한 바이클론즈 역시 출시 5개월 만에 약 100억원 매출액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100억원대의 바이클론즈의 완구 판매 기

록은 또봇이 2009년 출시 이후 14개월 간 약 5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영실업 한찬희 대표는 “지난해 해외 캐릭터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경쟁사들의 유사 제품 공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작 콘텐츠의 성공적 론칭, 기존 캐릭터에 대한 변함없는 고객의 사랑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당초 목표 매출액이었던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실업은 지난해 애니메이션 론칭과 함께 리뉴얼한 공순이를 적극 육성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에 진출한 또봇의 인기에 힘입어 시크릿썬쥬, 바이클론즈 등으로 수출 브랜드를 확대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프랑스,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 등을 포함한 수출확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담뱃값 인상 한달



글로벌 담배 제조사의 저가 공세로 KT&G 민영진(사진 왼쪽) 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담배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편의점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50% 아래로 수직 급락했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업체가 집계한 KT&G의 지난달 매출 기준 점유율은 43.2%에 불과했다.

점유율 50%대가 무너지자 민 사장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010년 취임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별다른 위기 없이 지내왔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

KT&G, 외국산 제품에 밀려 시장점유율 50% 붕괴

BAT, 저가 마케팅 성공… 2위와 1%P까지 따라붙어

때문이다. 그렇다고 담뱃값을 외국업체 수준으로 내릴 수도 없다. 값을 올려 금연 효과를 피하는 정부정책에 맞선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자칫 경쟁에 매몰돼 시장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의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KT&G는 예년과 달리 올해의 실적 추정

치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외부 변수가 많다”며 “KT&G의 실적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KDB대우증권도 KT&G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10.8%, 26.5%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던hill과 보그 등을 판매하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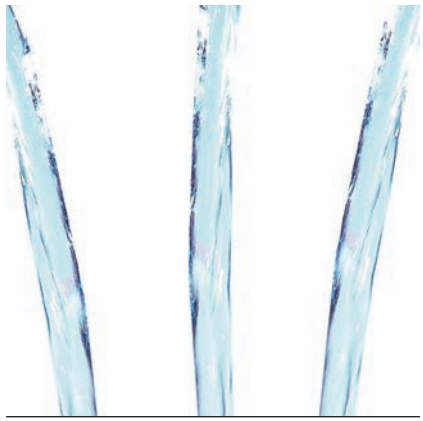
의 가이 펠드럼 사장(사진 오른쪽)은 10%대에 머물렀던 점유율을 2위와 1%포인트 차이까지 끌어올렸다. 연초 담뱃값 인고를 미루며 던hill과 보그 등을 전년 수준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집중시킨 효과다. 보그는 3500원에 판매되면서 편의점마다 매대가 텅텅 비는 등 국민 담배 반열에 오르니까까지 했다. 지난 2011년 던hill 등 주력 담배 제품의 가격을 200원 올려 점유율이 반토막났던 기억을 갖고 있던 BAT코리아에게 이번 저가 마케팅은 대성공이라는 평가다.

윤철규 기자 yoonck@

KT&G·BAT코리아 희비



# ‘3社3色’ 정수기 특화경쟁 불꽃튀는 물싸움



업계 1위 코웨이 살균장비 보급  
고객 케어 기능 한 차원 높여

기술력 초점 맞춘 청호나이스  
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로 승부

저렴하고 위약금 無 동양매직  
하이마트 36개월 무이자 판매



올해 국내 정수기 시장이 더욱 치열해진다. 코웨이를 필두로 한 선두업체들은 물론, 저가 제품으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후발업체들이 급증하면서 내수시장 점유율 싸움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등 선두 '빅3' 업체들은 각자 특화전략으로 경쟁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4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올 상반기 내에 자사 방판 조직인 '코디'를 대상으로 새로운 고객 케어용 '살균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이 살균장비는 코웨이가 고객 케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디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며 정수기 등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향후 장비가 보급되면 코웨이의 고객 관리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웨이는 최근 코디의 유니폼도 새롭게 디자인해 보급했다. '물 기업'의 정체성을 담아 푸른색 계열로 디자인했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와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코디에 대한 지원은 코웨이가 올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김동현 코웨이 대표도 최근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종합 고객 케어기업이란 방향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웨이를 정수기시장 1등으로 이끈 1만3000여명의 코디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독보적인 고객 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정수기 업계 2위 업체인 청호나이스는 올해 '커피 얼음정수기'에 사력을 기울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커피 얼음정수기 '휘카페'를 출시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엔 초소형 커피 얼음정수기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 다른 업체들과 차별성을 꾀하겠다는 정휘동 회장의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아직 커피 얼음정수기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익숙지 않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커피 얼음정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 크지 않아 최근 광고를 새롭게 론칭하는 등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인식만 조금 높아지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휘카페 제품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매직도 판매 방식에 변화를 꾀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최근 롯데하이마트와 함께 업계 최초로 정수기를 36개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판매를 개시한 것, 기존 렌탈 방식과 비교해서 비용이 약 10% 저렴하고, 소유권도 구매 즉시 소비자가 갖게 돼 위약금 염려도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동양매직 입장에선 시장점유율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쿠쿠전자, 바디프랜드 등 후발업체들이 저가 제품들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올해 정수기 시장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이라며 "코웨이를 비롯한 빅3 업체들의 특화 전략이 올해 정수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시장 점유율은 코웨이가 약 45%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청호나이스와 동양매직이 약 10%씩을 차지하며 정수기 시장의 '빅3'를 형성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 국내 제약사 '4가 독감백신'에 사활

(1회 접종으로 4종류 독감바이러스 동시예방)

일양약품 임상 계획 식약처 승인

녹십자·SK케미칼 임상 3상 진행

국내 제약회사들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4가 독감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 4가 독감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4종류(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의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독감백신이다.

4월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로선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만이 4가 독감백신 판매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유정란 배양 방식의 4가 독감백신 '플루아리크스 테트라'는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백신은 모두 3가 백신으로, 최근에는 독감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대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유럽 의약품안전청(EMA)·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으로부터 4가 독감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추세다. 이에 국내 독감백신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녹십자와 2년째 독감백신을 개발한 일양약품, 그리고 최근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방식의 독감백신의 제품 허가를 받은 SK케미칼 등 3곳이 4가 독감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최근 4가 독감백신인 '일양플루백신 4가주'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1/2a상 임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는 유정란 배양 방식을 활용해 만든 독감백신으로 일양약품은 이달부터 4가 독감백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녹십자도 유정란 배양 방식의 4가 독감백신에 대한



SK케미칼의 백신공장인 '엘하우스(L House)'에서 백신이 생산되고 있다. 이 공장은 긴급상황을 대비한 세포배양 백신 시설을 국내 최초로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 SK케미칼

임상 3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포배양 방식의 경우 임상 12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서 녹십자는 지난해 9월 말 유정란 배양 방식 4가 독감백신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세포배양 방식의 독감백신을 상용화한 SK케미칼 역시 세포배양 방식의 4가 독감백신의 세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현재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SK케미칼은 지난해 말 세포배양 방식의 3가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의 제품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올 하반기 4가 독감백신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독감백신 제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전통적인 제조방식은 '유정란을 이용하는 것과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세포배양 방식은 전통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며, 유정란 배양 방식은 안정성이 입증됐고, 세포배양 방식에 비해 생산 단가 면에서 유리하다.

강인호 기자 kangih@

잡플래닛 윤신근 공동대표

## 연봉·복지... '진짜' 기업정보 서비스 10개월, 리뷰 70만개



등록 회사 수도 2만여개 달해

지난달 월컴 등 3곳서 90억 유치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이달 오픈

마케팅 취약...페이스북으로 활용

취업 준비생과 이직 준비자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가 있다. 기업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관계자들의 생생한 리뷰를 통해 연봉, 면접정보 등을 소개해주는 '잡플래닛'이다.

윤신근 잡플래닛 공동대표는 국내에 없던 서비스인 이 사이트를 지난해 4월 처음 론칭했다. 그는 "황희승 공동대표와 2003년 처음 만나 창업에 대한 꿈을 나눴다"며 "기업에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복지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잡플래닛은 지난달 월컴·알토스·본앤젤스로부터 9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지난해 론칭 당시 본앤젤스·더벤처스로부터 받은 금액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투자유치금액만 113억원이다. 론칭 10개월이 지난 현재 월 순방문자는 300만명에 달하며 기업의 누적 리뷰는 70만개에 이른다. 등록된 회사 수도 2만개 정도로 국내의 굵직한 기업들은 모두 잡플래닛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잡플래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해외진출에 사용한다. 윤 대표는 "세계 곳곳에 취직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정보를 못받아 보는 국가도 있기 마련"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투자금이 많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잡플래닛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을 공략하고 있다. 5개국 전체를 3월 전에 오픈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는 직접 현지 사무실을 개소하고 지사장급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워낙 시

장이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라 먼저 선점하고 싶어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라며 "나머지 국가에선 트래픽 나오는 상황을 보고 론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금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 마케팅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마케팅은 페이스북으로 해결한다는 게 윤 공동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반에 '잡플래닛에 10만개의 기업 리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리뷰를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방문자수는 급속도로 늘었다. 윤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는 구글, 네이버, Bing 등 여러 창구를 활용해 마케팅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latio@

나에게 딱 맞는 수트처럼 영양제도 스마트한 비맥스로

업무피로, 비맥스로 스마트하게

SMART 비타민제

# 비맥스정

업무피로를 이기는 스마트한 방법, B-maxTab.

|                 |                   |
|-----------------|-------------------|
| 피로 해소를 위한       | 건강을 위한            |
| <b>비타민 B</b>    | <b>UDCA와 메티오닌</b> |
| 남성 건강에 좋은 미네랄   | 활성형 비타민           |
| <b>마그네슘과 아연</b> | <b>벤포티아민</b>      |

SMART 비타민제 B-max는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B와 C의 섭취량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위한 UDCA와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어 당신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SMART 비타민제

# 비맥스정

광고심의필 : 1152-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돈 급한’ 박삼구 회장, 합종연횡 나서나

〈금호아시아나그룹〉

## 막 오른 금호산업 인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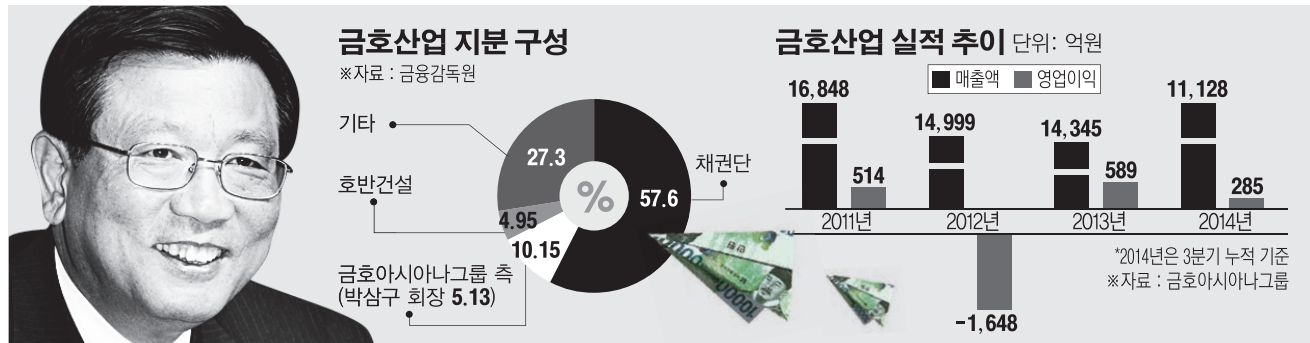
금호산업 인수전이 본격화됐다.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 금융기관(채권단)은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57.6%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 주판사는 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가 맡고 있다.

인수의향서(LOI)는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한다. 인수의향서는 심사를 거쳐 7-8월께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의 중심에 있는 만큼 벌써부터 치열한 인수전이 예상된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1%를 가진 대주주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타미네과 금호사옥·금호리조트 등을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금호산업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박삼구 회장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금이다. 채권단이 보유 중인



## 채권단 지분 58% 인수가 6000억 웃돌아...자금 동원력 변수 ‘유통 빅3’ 롯데·신세계·CJ·사돈기업’ 대상 등 손잡을 가능성

지분은 시가로 4700억원 선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1500억~1600억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금호석유화학 지분 매각으로 약 3300억원을 확보했지만 2012년 워크아웃 위기에 빠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11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박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보유한 금호산업(10.4%)과 금호타이어(5.22%) 지분의 경우 전량 담보

로 설정돼 있어 추가대출도 쉽지 않다.

때문에 박 회장이 다른 대기업이나 FT들과 합종연횡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항공업 진출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꾀할 수 있는 롯데·신세계·CJ 등 유통업체 빅3와 손잡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항공업에 관심을 보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박 회장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군인공제회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3년 금호타이어 지분 70%를 매입하는 등 박 회장과 인

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 투자자로 사돈 기업인 대상그룹의 지원도 예상되고 있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박현주 대상홀딩스 부회장은 박삼구 회장의 여동생이다. 대상그룹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유통자산은 8835억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548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금호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인 호반건설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금호산업 지분을 6.16%까지 끌어올린 호반건설은 최근 지분을 일부 매도했지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호반건설의 현금보유액만 6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단독 인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GS건설, 올해 ‘자이 시리즈’ 2805가구 분양

### 김포 한강·청라 등 2차 공급

GS건설이 지난해 1차 분양의 성공 여세를 몰아 상반기 중 2차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달 경기도 김포의 ‘한강센트럴자이 2차’를 시작으로, 인천 청라, 경기 미사강변, 서울 성동구 금호동 등 서울 도심과 공공택지에서 잇달아 2차 분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공급 규모는 2805가구로 이른바 ‘자이 브랜드타운’ 조성을 위한 시리즈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도 시리즈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은 경기 김포 감정동에 들어서는 ‘한강센트럴자이 2차’로 오는 27일 모뎀하우스 개관 준비에 한창이다. 이 단지는 작년 5월 분양한 3481가구에 달하는 한강센트럴자이 1차를 최근 분양 7개월 만에 완료하고, 1차 계약 완판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2차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전용 84㎡·100㎡ 598가구 규모로, 1차와 도로 하나를 두고 위치해 있어 총 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자이 시리즈 아파트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선보인다. 해당 물량은 ‘청라크라이더테라스’로, GS건설이 지난 2007



한강센트럴자이 2차 조감도.

년 11월 분양한 ‘청라자이’에 이어 8년 만에 이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3월에는 지난해 위례와 함께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 청약 열풍을 이끌었던 미사강변도시에서도 자이 시리즈가 나온다. GS건설은 미사강변도시 A1 블록에 전용 91~132㎡ 555가구 규모인 ‘미사강변리버뷰자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4월에는 서울에서도 자이 시리즈가 나온다. GS건설은 오는 4월에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에 재개발한 ‘신금호파크자이’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강남생활권인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금호자이1차’(2012년 1월 입주, 497가구), ‘금호자이2차’(2012년 7월 입주, 403가구)에 이어 세 번째 사업이다.

박태진 기자 tjipppo@



## 추천 경매 물건

| 용도         | 소재지                                                        | 건물 (㎡) | 감정가 (만원)    | 최저입찰가 (만원)  | 감정가 대비(%) | 입찰 및 개찰일 | 경매 개 | 사건 번호      |
|------------|------------------------------------------------------------|--------|-------------|-------------|-----------|----------|------|------------|
| 아파트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2-4, -5, -8, -11, -14, -16 삼성한사랑 102동 4층 406호 | 85     | 412,000,000 | 329,600,000 | 80%       | 2월 25일   | 남부6  | 2013-27999 |
| 아파트        |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4 송파KCC 101동 2층 204호                          | 84     | 500,000,000 | 400,000,000 | 80%       | 2월 23일   | 동부2  | 2014-5450  |
| 아파트        |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9 암사동한솔 101동 6층 608호                          | 85     | 430,000,000 | 344,000,000 | 80%       | 2월 23일   | 동부2  | 2014-8381  |
| 아파트        |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돈암상정 107동 5층 506호                          | 115    | 463,000,000 | 370,400,000 | 80%       | 2월 23일   | 북부1  | 2014-15491 |
| 아파트        | 서울 성북구 정릉동 435, -1 중앙하이츠빌2단지 207동 4층 401호                  | 85     | 340,000,000 | 272,000,000 | 80%       | 2월 23일   | 북부2  | 2014-22161 |
| 아파트        |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5-14 삼익원지 623동 21층 2101호                     | 119    | 430,000,000 | 344,000,000 | 80%       | 2월 24일   | 안양3  | 2014-3345  |
| 주상복합 (아파트)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0-1 영풍 101동 2층 201호                       | 85     | 297,000,000 | 237,600,000 | 80%       | 2월 17일   | 안양2  | 2014-4836  |
| 아파트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4-1 신우 605동 10층 1002호                     | 115    | 317,000,000 | 221,900,000 | 70%       | 2월 17일   | 안산8  | 2014-13597 |
| 아파트        | 인천 계양구 용중동 213-3 초정마을동아 324동 4층 402호                       | 95     | 290,000,000 | 203,000,000 | 70%       | 2월 23일   | 인천15 | 2014-10498 |
| 아파트        | 인천 서구 당하동 1027-3, -14 동문굿모닝힐 603동 6층 604호                  | 85     | 210,000,000 | 147,000,000 | 70%       | 2월 24일   | 인천6  | 2014-58896 |

\*자료제공: 지치옥션 www.ggi.co.kr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2-4, -5, -8, -11, -14, -16 삼성한사랑 = 102동 406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8년 2월 준공한 3개동 244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9층 건물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4.99㎡, 방 3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증미산, 봉제산 체력단련장, 이마트, 홈플러스, 강서소방서, 강서구보건소, 서울시립강서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다. 최초 감정이 4억12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3억2960만원이다. 입찰은 2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6계. 2013-27999.

구성원 기자 carlove@

## 수도권 주택보유자 22.7%

### “이사 계획” 6년만에 반등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 중 ‘이사 계획’이 있다’는 가구가 5년간의 지속적 감소세를 벗어나 처음으로 반등했다.

2일 대우건설, 피데스개발, 해안건축이 한국개발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전용면적 80㎡ 이상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2014년 10~12월)한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 수도권지역 주택 소유자 중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는 22.7%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첫 반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는 지난 2009년 34.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20.6%로 최저점을 찍고 6년 만에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22.7%로 반등했다.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3년 이내 이사 계획 가구는 48.9%로 전년 39.2% 대비 9.7%포인트 상승했으며 2009년 50.0%과 비슷한 수치로 회복됐다. 1년 이내 이사 계획 가구는 5.7%, 2년 이내 이사 계획 가구는 18.1%, 2~3년 이내 25.1%로 나타났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마곡 ‘오피스텔’·위례 ‘상가’·평택 ‘렌탈 아파트’...

# 수익형 부동산, 지역따라 ‘찰떡궁합’ 있다

## 초저금리시대 투자처로 각광

### 개발·배후수요·임지 따져봐야

예금 금리가 1%대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경기도 평택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마곡지구는 LG컨소시엄·코오롱콘소시엄·롯데컨소시엄 등 대기업 50여개가 줄줄이 입주할 예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까지 업체들이 입주를 마치면 상주인구가 4만명, 기업 종사자 약 17만명, 유동인구



세종시에 위치한 ‘스마트허브 I·II’ 조감도.

약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마지막 신도시이며 강남과 가장 가까운 위례신도시는 ‘트랩라인’을 따라 자리한 상가들이 제2의 강남 상권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인기가 높다. 트랩은 8호선 우남역과 북정역, 5호선 마천역, 위례·신사선(경전철) 등과 연결되며 유동인구가 몰릴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도 안성리에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 의정부 등 전국 50여개 미군 기지가 이전할 예정이어서 미군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해 36개 중앙부처 1만3002명, 14개 국책연구기관 3192명이 근무하게 된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시로 지정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저금리 시대 주목할 만한 상가로 위례신도시 11-1-1블록 ‘위례 우성트래파워’, 세종특별자치시 3-2생 활권 C1-1 BL, C1-2 BL ‘스마트허브 I·II’를 꼽았다. 또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C1-1블록 ‘마곡시티’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판교 SK 허브 오피스텔’, 수익형 렌탈 아파트는 평택시 팽성읍 안성리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ipppo@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로 확인하세요.

신간

돈 한 톨 안 들이고  
20평대에서  
50평대로  
갈아타기



푸르미미 지음  
| 210쪽 | 13,000원

# 돈 한 톨 안 들이고 20평대에서 50평대로 갈아타기

3년 안에 부자 되는 똑똑한 집테크  
똑똑하게 굴린 집 한 채로 인생 역전에 도전한다!

가계부를 쓰면서 문화생활비, 학원비  
심지어 부모님 용돈을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절약’이 아닌 ‘투자’다!

당신이 속고 있었던 진짜 재테크 이야기

1.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2. 부도난 아파트가 돈이 된다
3.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음에 살 아파트를 미리 사라
4. 투자의 승패는 사는 순간 결정 난다
5. 이사하는 횟수만큼 부도 증가한다
6. 돈은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다
7. 대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8. 지금 당장 가계부를 찢어라
9. 분산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10. 같은 곳에 투자한다고 리스크가 같은 것은 아니다



# “생큐! 그리스” 세계 증시 일제히 상승

채무탕감 철회 대신 ‘성장률 연동 국제교환’ 제안 호재  
유럽증시 상승 전환… 뉴욕증시 다우도 1.76% 급등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 채무탕감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제시한 ‘성장률 연동 국제교환’ 방식에 그리스발 긴장감이 후퇴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리스의 아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 채권단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의 기존 국채를 그리스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된 새 국제로 교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EFSF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의 국제 규모는 그리스 정부부채(3200억 유로)의 44.3% 수준인 1420억 유로. 채무상환을 성장률과 연동해 경제가 좋아지면 부채를 많이 갚고 침체 시에는 부채를

적게 갚겠다는 뜻이다.

만약 이 방안이 이뤄진다면 그리스와 EFSF는 기존 국제와 교환할 신규 GDP 연동 국제의 표면금리를 기존 국제보다 낮추고 만기도 더 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리스가 대놓고 채무탕감(헤어컷)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헤어컷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 수인 셈’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약속은 견고하다. 우리가 헤어컷을 완곡어법과 스와프로 대체하려다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유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스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월가에선 ‘영리한 발상’이라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루이스캐피탈마켓의 트리스탄 아벳 전략가는 “헤어컷이 없다는 것은 좋은 뉴스”라면서 “채권과 경제 성장률을 연관시킨 것은 매우 영리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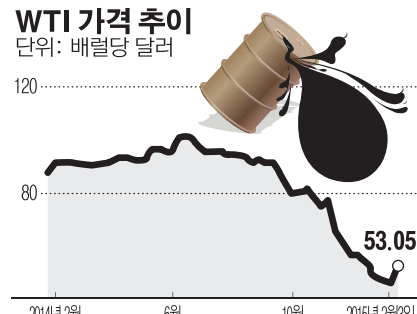
이에 이날 세계증시는 그리스발 긴장감이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에 급등했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305.36포인트(1.76%) 오른 1만7666.40를 기록했으며, S&P500지수는 29.18포인트(1.44%)

상승한 2050.03을, 나스닥은 51.05포인트(1.09%) 오른 4727.74를 각각 나타냈다.

유럽증시 역시 그리스 이슈가 약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했다.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이날 1.32% 오른 6871.80를 기록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지수는 0.58% 상승한 1만890.95를, 프랑스 파리증시 CAC40지수는 1.09% 오른 4677.90를 각각 기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국제유가 바닥 쳤나



3일 美 산유량 공급 축소 전망에 WTI 7% 급등  
일각선 “원유재고 최고치… 제한적 반등” 주장도

국제유가가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상품시장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일(현지시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3.48달러(7.0%) 상승한 배럴당 53.0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9%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54달러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WTI는 지난달 28일 올해 최저치에서 20% 가까이 치솟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57달러를 웃돌았다.

이날 유가는 다국적 정유사 BP의 밥 더들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더들리 CEO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원유시추시설 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글로벌 정유업체가 지난 1986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앞서 유전서비스업체 베이커휴즈는 지난주 미국에서 시추시설 94개의 작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다.

관건은 미국 셰일업체가 유가 급락에도 산유량을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BP와 함께 유럽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BG그룹이 최근 자본지출 축소와 감원을 발표했다면서 중

국 3대 정유사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역시 자본지출을 줄이기로 한 것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글로벌 정유업체와 미국 셰일업체가 감소에 나설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발 위기가 진정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유가 반등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나일 아슬람 아바트레이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며 “그리스 상황이 개선되면서 유럽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상품 수요 증가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인덱스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유가 강세 재료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원유 매대 결제 수단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유가는 상승한다.

일각에서는 원유 등 상품가격의 반등은 일시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NBC는 미국의 원유재고가 8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반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 ‘D의 공포’ 확산… 글로벌 통화완화 가속

작년 12월 OECD 회원국 인플레이션을 5년만에 최저  
호주 ‘깜짝’ 금리인하로 세계 통화정책 완화 대열 합류

글로벌 디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각종 중앙은행의 행보가 빨라질 조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34개 회원국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1%로, 전월의 1.5%에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유가 급락과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린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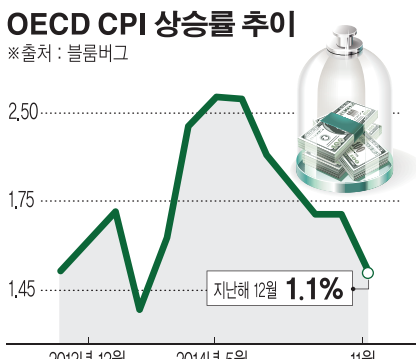
으로 분석됐다.

세계 각국은 낮은 인플레이션이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하면 기업과 가계, 정부가 채무 부담을 더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 둔화나 물가 하락은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연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올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도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려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종전 2.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2.25%로 하향 조정했다. 덴마크중앙은행은 최근 2주세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낮췄다. 스위스중앙은행(SNB)도 지난달 15일 유로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방어 비용 부담에 유로페그제를 폐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했다. 인도는 물론 터키와 러시아 등 신흥국들도 자국 통화까지 하락이라는 부담에도 ‘올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낮췄다.

유로존의 1월 CPI 잠정치가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각국의 부양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도중앙은행



(RBI)은 이날 금리를 동결했지만 법정유동성비율(SLR)을 21.5%로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추는 등 부양 기조를 유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실시한다.

마켓워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만이 대조적으로 올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헌법재판관 출신’ 伊 마타렐라 대통령 취임



제2대 이탈리아 대통령인 세르지오 마타렐라(73·가운데) 신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쿼리날레 궁전으로 향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마타렐라 신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취임 서약을 하고 대통령 7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그는 무명용사 묘지를 참배하고 대통령 궁으로 들어가 정식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로마/AFP연합뉴스

## ‘뺨튀기 평가’ S&P 1.5조원 벌금 확정 무디스도 조사 중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금융위기 촉발의 책임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담보증권(MBS)의 신용등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당한 S&P가 13억8000만 달러(약 1조5169억원)를 내기로 미국 법무부 등과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S&P는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벌금의 절반은 미국 법무부에 내고 나머지는 19개 주와 워싱턴DC에 낼 것이라고 전했다. S&P가 내야하는 금액은 금융위기 이전 MBS 신용평가 관련 최대 규모이던 당초 소송액인 5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고 S&P의 2013년 매출 22억7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다.

무디스인베스터스(무디스) 역시 MBS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담당자는 최근 몇 달 동안 무디스의 여러 전직 임원을 만나 금융 위기의 요인이 된 구조화 증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법무부의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조사가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법무부는 S&P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2004~2007년 판매한 주택담보증권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혜민 기자 haemin2558@

## 글로벌 리포트

“택시 앱” 구글에… 등 돌린 우버

동지 사이였던 택시 애플리케이션 업체 우버와 구글이 전쟁을 벌일 태세다. 구글이 택시 앱 사업에 뛰어들자 우버도 무인자동차 개발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우버는 카네기멜론대(CMU), 미국 국립로봇기술센터(NREC) 등과 손잡고 무인차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연구소는 우버의 이름을 달 것이며 무인차는 물론 지도와 기타 차량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무인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구글에

도전을 던진 것이다.

먼저 싸움을 불을 지핀 것은 구글이다. 지난 2013년 8월 구글벤처스가 우버에 2억 5800만 달러(약 2835억원)를 투자하면서 양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당시 투자는 구글벤처스 최대 규모였다. 그로부터 1년도 안돼 구글은 우버에 추가 투자했다.

그러나 2013년 우버 이사회에 합류한 데이비드 드루먼드 구글 최고법무책임자가 최근 이사회에서 무인차와 연계된 자체 차량공유 앱 개발 사실을 밝히면서 양사 관계는 틀어지게 됐다. 우버는 드루먼드를 해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투자하면서 우버의 기술을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IS ‘요르단 조종사 화형’ 영상 공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3일(현지시간) 공개해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이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IS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22분짜리 영상에는 마즈 알카사스베(26) 요르단 공군 중위로 보이는 인물을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담겼다. IS 조직원들은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이 남성을 아열에 설치된 철창에 가두고 몸에 불을 지른다.

F-16 전투기 조종사인 알카사스베 중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의 IS 공격에 참가했다가 전투기 추락으로 IS에 생포됐다. IS는 지난해 요르단이 수감 중인 사형수 사지다 알리샤위를 석방하지 않으면 알카사스베 중위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요르단 정부는 알카사스베 중위가 살아 있다는 증거를 확인해야만 알리샤위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으나 IS는 지난 1일 고토 씨를 참수한 영상을 공개, 이후 이틀만에 알카사스베도 살해했다.

이 영상에 분개한 요르단군은 성명을 통해 복수를 맹세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신간 출간

소설 ‘앵무새 죽이기’로 풀리처상을 받았던 하퍼 리(88)의 두 번째 소설이 7월 출간된다. 하퍼출판사는 3일(현지시간) 하퍼 리가 1950년대 쓴 ‘고 셋 어 워치맨(Go set a Watchman)’을 7월 14일 출간한다고 밝혔다. 책 제목인 ‘고 셋 어 워치맨’은 구약성서 이사야서 21장에 나오는 구절로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라는 의미다. 하지만 하퍼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에 착안해 책 제목을 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소설은 ‘앵무새 죽이기’보다 먼저 쓰였지만 ‘앵무새 죽이기’의 후속편으로 전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여왕’ 심석희 뒤 ‘괴물’ 최민정 있다



쇼트트랙 월드컵 4차대회 1500m서

몸살 결장 심석희 대신해 최민정 금

작년 컨디션 난조·눈부신 성장 엇갈려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 평창선?

한국 여자 쇼트트랙에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18·세화여고)와 혜성처럼 나타난 기대주 최민정(17·서현고)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박승희(23·화성시청)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스타는 단연 심석희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 목동 링크에서 열린 2014-201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마지막 날 여자 1500m 경기에서 특급 신예 최민정이 감기몸살로 결장한 심석희를 대신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은 이날 경기 막판까지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순식간에 앞선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열린 여자 3000m 우승에 이어 이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이자 2차 대회부터 3회

| 심석희 vs 최민정                                                                  |       |                                                                                                        |  |
|-----------------------------------------------------------------------------|-------|--------------------------------------------------------------------------------------------------------|--|
| 심석희                                                                         | 최민정   |                                                                                                        |  |
| 18                                                                          | 나이    | 17                                                                                                     |  |
| 세화여고                                                                        | 학교    | 서현고                                                                                                    |  |
| 175cm                                                                       | 신장    | 162cm                                                                                                  |  |
| 노련한 경기 운영                                                                   | 장점    | 폭발적 스피드와 강한 체력                                                                                         |  |
| 2014 소치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 1500m 은메달, 1000m 은메달, ISU 쇼트트랙 월드컵 12개 대회 연속 금메달 | 주요 경력 | 2014 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3000m 금메달, 2차 1500m, 3000m 계주 금메달, 3차 1000m, 3000m 계주 금메달, 4차 1500m, 3000m 계주 금메달 |  |

연속 개인 종목 금메달이었다.

최민정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심)석희 언니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세계 랭킹 1위다. 언니와 같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며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정의 성장 속도는 눈이 부실 정도다. 지난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최민정은 월드컵 1차 대회 3000m 계주 금메달에 힘을 보탰고, 2차 대회 1500m와 3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3차 대회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은 이전 심석희의 여제 자리마저 위협할 기대주로 떠올랐다.

심석희는 지난해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마지막 주자로 나서 막판 스퍼트로 역전 우승을 일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다. 그러나 심석희는 최근 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월드컵 2차 대회까지 12회 연속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한 심석희는 월드컵 3차 대회 1000m와 15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놓쳤고, 4차 대회 1000m에선 아예 메달권 밖으로 벗어났다. 또 1500m와 3000m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경기를 포기했다.

이제 심석희와 최민정은 부정할 수 없는 라이벌이 됐다. 두 선수에겐 나쁘지 않다. ‘빙속여제’ 이상화(26)와 남자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27·대한항공)에게는 서로를 이끌어 줄 국내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키려는 심석희와 빼앗으려는 최민정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이끌고 있다. 두 선수의 목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왕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 야구할 기회?... 착취당하는 '신고선수'

### FA ‘돈 잔치’에 가려진 ‘그들’

#### 구단 연봉 규정 없고 정식계약 안해

#### 작년 집계 246명 합산 금액 49억원

#### 상시해고 가능 독점 권한 ‘보류권’도

#### 젊은 유망주들 ‘구슬땀’ 헛수고 우려

화려했던 자유계약(FA) 시즌은 가고 혹독한 신고 선수(연습생)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FA 시장은 역대 최대 돈 잔치로 막을 내렸다. 19명의 FA 선수가 계약한 총액은 630억6000만원으로 최정(28·SK), 장원준(30·두산) 등 80억원 이상(4년 총액) 짝꿍을 터트린 선수가 3명이나 배출됐다. 50억원 이상에 계약한 선수는 총 6명이다. 이전 시즌 FA 선수 16명의 계약 총액 523억5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신고선수들에게는 FA 돈 잔치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지난해 시즌 개막 직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집계한 신고선수는 246명(KT 포함)으로 국내 프로야구 사상 역대 규모였다. 국내 프로야구단 엔트리 제한이 65명인 것을 감안하면 3개 구단을 푸르고도 남는 규모다. 이 중 33명을 보유한 KIA가 가장 많았고, 삼성(28명), 한화(26명)가 뒤를 이었다.

서건창(26·넥센), 김현수(27·두산), 이종욱, 손시현(이상 35·NC) 등 한때 신고선수를 거쳐 고액 연봉 선수로 거듭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신고선수를 지원하는 젊은 유망주들은 스타 선수 반열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신고선수는 규모만 커졌을 뿐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한국프로야구 등록선수가 받는 최저 연봉은 2700만원(지난

해 2400만원)이지만 신고선수는 최저 연봉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 구단이 임의로 책정하고 있다. 신고선수 연봉은 대체로 2000만원 전후로 246명을 합산해도 49억원이다. 630억원을 훌쩍 넘긴 FA 선수 19명보다 13배나 적은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불안정한 계약기간이다. 정식 계약 선수는 11월까지 계약을 보충받지만 신고선수는 시즌 중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단의 신고선수는 계약서에 상시 해고를 명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선수의 보류권도 논란이다. 드래프트에서 제외돼 자유계약선수 신분이지만 구단은 2013년 시즌을 앞두고 신고선수 보류권이라는 조항을 만들었다. 보류권이란 구단의 독점적 보류권으로 신고선수 육성을 이유로 독점권을 더한 셈이다. 정식 계약 선수는 보류권을 통해 각종 신변 보호를 받지만 신고선수는 언제라도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신고선수 보류권은 2차 드래프트 회피라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드래프트 지명 선수를 보유 한도(63명) 초과를 이유로 신고선수로 등록하지만 시즌이 끝난 뒤 2차 드래프트가 열리는데 미리 어린 유망주를 신고선수 보류권을 통해 신고선수로 빼돌리면 보호선수를 늘릴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KBO와 각 구단은 올해부터 신고선수를 육성선수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신고선수에 대한 환경과 처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는 “FA 선수와 신고선수의 연봉을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공급을 늘려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양질의 선수를 육성하면 양극화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독립 리그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협회 차원에서 공급을 늘려 양질의 선수를 양성할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 뻘뻘, 두 K리거

### ‘국대 공격수’ 이정협·조커’ 한교원, 아시안컵 후 새 기대주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K리거들은 해외파 위주의 선수 구성 속에서도 제몫을 다하며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아시안컵을 통해 올 시즌 기대치를 한껏 높인 K리거 2인의 스타로는 이정협과 한교원을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정협과 한교원의 활약은 해외파 못지않았고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협, 무명의 신인에서 국가대표 공격수로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발탁됐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의문부호를 던졌다. 하지만 이정협은 골로 화답했다. A매치 데뷔전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렸다. 골잡이 본색은 본선에서도 이어졌다. 조별리그 호주전, 4강 이라크전에서 각각 1골씩을 터뜨리며 슈틸리케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아시안컵에서 몰오른 감각이 K리그로 이어갈지 주목된다. 상주의 스트라이커로 팀의 1부리그 재승격을 이끈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은 “아시안컵에서는 주로 해당 같은 원터치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불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다. 다만 본인이 일정 시간 불을 소유했을 때 주변 동료들에게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기술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리그 통산 52경기 6득점 2도움, 지난 시즌에는 25경기 4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협

한교원

◇한교원, 조커로 대표팀 공격 옵션 넓혀 아시안컵에서는 조커로 제몫을 다했다. 한교원은 3경기(2선발)에 출전해 상대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소화했고, 빠른 스피드와 적극적인 수비 기법으로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 옵션을 넓혀 줬다.

대표팀 경험은 많지 않지만 K리그에서는 임지를 탄탄하게 다져 왔다.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맹활약한 뒤 지난 시즌 전반기에 이적한 뒤 위협적 가호지르기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올 시즌도 힘과 스피드를 앞세운 측면돌파로 전북의 2연패 도전에 힘을 보탠다. K리그 통산 125경기 26득점 9도움을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엔 32경기에 출전해 3도움을 기록했다.

최성근 기자 sgchoi@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기술 + 우드형 헤드설계로 인해서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충 중량이 더 가볍고 헤드밸런스도 가벼워서 스윙이 쉽고 편하다.
- 트랙맨(TrackMan) 분석결과 백스핀이 1.12배 더 증가했다.
- 헤드의 솔이 넓기 때문에 뒤땅이 없다.
- 쓸어치게 되기때문에 엘보우가 없다.

Long IRON #2 ~ #11

#2 IRON

Middle IRON

Short IRON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위 - **BANG** 뱅골프 로고가 들어간 셔츠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사우스케이프 인스클럽

이모 cc

신원 cc

반포 골프백화점 (02-534-0220)

안양베네스트 cc

안양베네스트연습장

아시아나 cc

동래베네스트 cc

센쥬리21 cc

해비치 cc 서울

가평베네스트 cc

본점 (02-310-1538)

강남점 (02-3479-1532)

경기점 (031-695-1845)

영등포 (02-2639-1536)

인천점 (032-430-1563)

의정부 (031-8082-0712)

충청점 (041-640-5753)

부산점 (051-745-1823)

마산점 (055-240-1406)

광주점 (062-361-1402)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7-3 (아람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 “8년 간 투병 아버지 간병하며 소외된 이웃 도와야겠다 결심”

국내 첫 ‘박사 출신 보험설계사’  
홍성원 푸르덴셜생명 영업이사  
사재 털어 ‘가족사랑연구소’ 설립  
후원금과 수익 모아 장애인 지원  
내일 강남서 ‘감사의 밤’ 행사

홍성원 푸르덴셜생명 영업이사(Executive Life Planner)는 보험업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국내 보험설계사 중에서는 드물게 박사 출신인 그는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다. 지난 1999년 푸르덴셜생명에 입사한 홍 이사는 이후 4년 만에 업계 최초로 이사로 승진했다. 이후 단국대에서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

서 최초의 ‘박사 출신 설계사’, ‘최초의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홍 이사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비결에 대해 ‘역발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험에 첫 발을 내디뎠을 당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전화로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고객이 먼저 전화를 하도록 만드자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홍성원 이사는 입사 이후 이듬해부터 보험영업의 달인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100만달러 원탁회의(MDRT)의 회원 자격을 얻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홍성원 이사는 입사 후 현재까지 686주 연속으로 매주 보험계약 3건씩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고객들이 도와주는 덕분에 지난해에도 400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설계사들 가운데 48등을 했다”며 “올해도 벌써 40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업계에서 신화를 써내려가

던 홍 이사는 10년 전인 2004년 9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된다. 바로 사재를 털어 장애우 지원단체인 ‘가족사랑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홍 이사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후 8년간 투병생활을 하시다 1994년 결국 돌아가셨다”며 “당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가족 사랑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다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기억을 회상했다. ‘가족사랑연구소’는 10년간 500명 이상이 후원자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기부받고 홍성원 이사가 직접 기업 강의 등으로 거둔 수익을 바탕으로 10년간 총 270명의 장애우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홍성원 이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 소외된 이웃 30명에게도 파산한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10년간 ‘가족사랑연구소’를 운영한 홍성원 이사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장애우 북



지시설 등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지만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한편,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족사랑연구소’는 5일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푸르덴셜생명 본사 내 푸르덴셜홀에서 ‘감사의 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시행했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보고와 함께 공연이 진행된다. 글/이재현·사진/장세영 nts0118@

## 선·정혜영 부부, 또 1억

7년째 위기가정아동 교육비 기부

선·정혜영 부부가 3일 홀트아동복지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선·정혜영 부부가 위기가정아동 교육비로 1억원을 기부했다”며 “이 같은 기부가 올해로 7년째 이어졌다”고 밝혔다. 선·정혜영 부부는 위기가정아동 교육비를 비롯해 지금까지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총 11억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했다. 선은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가지고 싶은 휴대폰을 못 가지는 것은 가난이라기보다 불편이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평가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다른 세상, 다른 생각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혜영 부부가 적극 동참하는 ‘꿈과 희망 지원’은 위기가정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상대적, 절대적 박탈 및 소외의 문제를 경감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혜영 부부의 기부로 2009년 전국 위기가정아동 100명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이 뜻에 공감하는 후원자들의 참여로 300명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정혜영 부부는 지금까지 약 36억원가량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현재 매일 부부의 이름으로 1만원씩, 자녀 각자의 이름으로 1만원씩을 모아 가족 중요 기념일에 기부하고 있다. 또 1000여명의 해외 아동들에게도 매달 수천만원씩을 내며 후원하는 등 기부를 생활화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 캡틴박 최고의 경기 ‘베스트 10’은...

세 번째 자서전 ‘마이 스토리’

11일 강남서 출간 기념회 개최

지난해 5월 그라운드를 떠난 박지성(34)이 자서전을 내놨다. 박지성은 2일 자신의 세 번째 자서전 ‘마이 스토리’를 출간, 지난 23년간의 축구 인생과 향후 목표, 유럽 프로축구리그 활동 시절의 경험담을 전했다. 이 책에는 자신의 유년시절 성장 과정과 세 차례 출전한 월드컵 축구대회 뒷이야기도 담고 있다. 또 박지성의 선수생활을 총망라한 ‘클럽선수로서의 박지성’과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박지성’을 나눠 전 시즌을 심층 분석하고 세세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박지성은 지난해 은퇴 직후 자서전 출간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부 ‘또 다른 승리를 위하여’에서는 국가대표와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주요 장면과 은퇴 기자회견 당시 느꼈던 소감, 은퇴에 대한 주변 반응, 무릎 부상에 얽힌 사정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 2부 ‘박지성의 모든 것’에서는 프로선수로 데뷔한 일본프로축구 교토 퍼플상가부터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의 출전 경기를 정리했다. 자신의 생애 최고의 경기 ‘베스트 10’도 소개했다. 그중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프랑스와의 평가전을 최고의 경기로 꼽았다. 월드컵 개막을 불과 5일 앞둔 5월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박지성은 0-1로 뒤진



전반 25분 김남일(38)의 긴 패스를 받아 프랑스 대표팀 주장 마르셀 드사이(47)를 제치고 원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며 수비 역할을 주로 하다가 이 골로 공격 포지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월드컵 본선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해 6월 14일 열린 포르투갈과의 한-일 월드컵 조별예선 3차전이었다. 박지성은 이 경기에서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결승골을 터뜨린 후 거스 하딩크(69) 당시 대표팀 감독에게 달려가 감동의 포옹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박지성은 또 에필로그를 통해 “저는 참 행복한 축구선수였다”며 “제가 이뤄질 거로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꿈이 많은 분의 응원으로 현실이 되었듯이 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성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의 교보문고에서 출간 기념 사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성민 기자 golf5@

## “기초과학·수학의 대중화 이끌겠다”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  
과학재단 ‘카오스’ 출범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사진)이 기초과학과 수학을 대중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카오스(KAOS·Knowledge Awakening On State)’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기업이 순수과학지원 재단을 설립해 관련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카오스재단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기형 회장과 2001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팀



영상, 서적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의 자문과 심의는 카오스 과학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장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

부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고계원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하웅 KAIST 물리학과 교수 등 9명이 참여한다. 이 회장은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철학이자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영역이 됐다”며 “2012년부터 이공계 석학들과 진행해온 카오스 콘서트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초과학과 수학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성제 기자 psj@



“다이에나와 결혼 망설였다”  
찰스 왕세자 傳記 내일 출간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다이에나비와의 결혼을 예식 하루 전날까지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일(현지시간) 출간 예정인 찰스 왕세자의 전기 ‘찰스: 왕의 심장’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가 1981년 다이에나비와의 불운한 결혼을 괴로워했다. 캐서린 메이어가 쓴 이 책에는 찰스 왕세자 주변의 핵심 인물을 인용해 그가 결혼 전날 밤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측근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책은 표현했다. 다이에나 역시 자신들의 관계에 큰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결혼 취소를 고민했다고 한다. 찰스는 자신이 오랜 연인이 카밀라 파커 볼스에게 마음을 있었다는 것을 다이에나가 알자 당황한 나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녀와의 결혼을 서둘렀다고 책은 전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의약품 사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식약처, 제약사 CEO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15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김진호 한국다국적약산업협회장과 제약업계 CEO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올해 비전으로 ‘의약품을 통한 건강한 삶의 보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심사용 환경 구축 △고품질·필수 의약품 공급 등 공공성 확대



△글로벌 신기술·신환경 선제적 대응 △미래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교육훈련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 박정렬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시장경제기획관 송상민
- ◆농촌진흥청 ◇국장급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허건양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장 이용범 ◇과장급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장 김상남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최유림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이상영 △가공이용과장 유선미 △발효식품과장 송금찬 △기능성식품과장 최정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원구소장 김명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박경숙 △국방대학교 과장 최동순 △통일교육원 과장 이명숙
- ◆특허청 ◇부이사관급 전보 △송무팀장 송병주 △상표심사1과장 김철환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현진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 김동업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 김영수 △북한디자인심사팀장 소진록 △특허법원 과장 김중찬 △황은택
- ◆대한지적공사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이사) 최충만 △공간정보사업본부

- 장 사재광 ◇실장 △기획조정실장 주한돈 △지적사업실장 유은상 △공간정보사업실장 권종일 △경영지원실장 허의환 △국토정보교육원 인재개발실장 최원준 △교육지원실장 안중 △교육운영실장 김장현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
- ◆전력거래소 ◇전보 △전력경제연구실장 문경섭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배병욱 △기획처 성과관리팀장 정연진 △기획처 KPX교육센터장 최은재 △경영지원처 총무팀장 최상준 △경영지원처 재무경영팀장 조덕균 △경영지원처 안전관리팀장 오진수 △전력계획처 전원계획팀장 김홍근 △전력계획처 장기수급분석팀장 류성호 △전력계획처 기후환경전략팀장 광왕신 △시장개발처 시장개발팀장 조광욱 △시장개발처 수요시장팀장 김상일 △시장운영처 고객지원팀장 박용조 △계통운영처 수급계획팀장 김태훈 △정보기술처 정보기술팀장 손운태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이진수 △정보기술처 시장시스템팀장 김원홍 △중앙전력관리센터 수급운영팀장 한승구
- ◆한국장학재단 ◇2급 교육과장 △국방대학교 과장 유영철 ◇3급 교육과장 △한국국무연수원 과장 한만섭
- ◆동양생명 (승진) ◇임원 △전무 김인

석 △이사대우 정경영 ◇팀장 △준법감시팀장 서해연

### 부음

- ▲김세웅(MBC 미래방송연구소 부국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9시 25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5일, 010-7110-1642
- ▲전진수(BBS불교방송 편성제작국 라디오편성부 PD)씨 별세, 남궁미영(인천 안남고등학교 교사)씨 남편상,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5일 오전 10시, 053-620-4670
- ▲박태석(농협 전북본부장)씨 부친상 = 3일, 부안호남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63-581-1004
- ▲권혁재(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씨 모친상 = 3일, 경기도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실, 발인 5일 오전 7시, 031-382-5004

### ‘애국지사’ 정낙진 선생 별세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펼친 애국지사 정낙진 선생이 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충남 공주가 고향인 선생은 일본 도쿄철도학교 재학 중인 1941년 항일 결사단체인 ‘우리조선독립그룹’에 가입해 활동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소재 여사와 5남이 있다.



### ‘76인의 포로’ 김남수씨 별세

한국전쟁 후 남과 북을 모두 포기하고 중립국행을 선택한 ‘76인의 포로’ 가운데 한 명인 김남수(83)씨가 지난 2일 오전 충북 음성 꽃동네 인국자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꽃동네에서 20여년간 생활했다. 꽃동네는 4일 오전 6시 꽃동네 대성당에서 오운진 신부의 집전으로 장례미사를 했다. 유해는 기자 euna@



## 中 최고 ‘슈퍼리치’ 리허진, 마윈 제쳐

자산 28조1000억원… 3배 경총

마, 짝퉁판매 논란에 3위로 ‘뚝’

중국 최대 부호 자리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다. 중국 최대 민영 청정에너지 발전 기업인 하너지그룹의 리허진(48)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 3일(현지시간)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연구소는 ‘2015년 후룬 부호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리 회장이 자산총액 1600억 위안(약 28조1000억원)으로 중국 최고 자산가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리 회장은 지난 16년 동안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부자 순위 가운데 12번째로 등장한 ‘새로운 부호’가 됐다. 리 회장의 자산은 지난해 대비 3배나 급증해 중국 순위 3위에서 1위로 올랐고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2014년 순위 108위에서 28위까지 뛰어올랐다. 리 회장이 이끄는 하너지그룹은 1994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이후 중국 내 10개 성 지역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자회사를 둔 민영 청정에너지발전 기업이다. 리 회장의 뒤를 이어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1550억 위안),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1500억 위안)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성공적인 뉴욕 증시 상장호파로 최고 부호에 올랐던 마윈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짝퉁판매’ 탓에 알리바바 주가가 급락하며 왕젠린 회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맥주·통신·자동차의 독과점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매우 뜻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제목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 -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였다.'

민주정책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몇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첫째, 새정치연합이 '시장'과 '경쟁'의 장점을 전면에 내건 토론회였고 둘째, 맥주·통신비·차 수리비라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셋째, '보수의 언어'로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맥주·통신비·차 수리비에 관한 경쟁촉진 3법은 내용적으로 '소비자 이익증진 3법'이기도 하며, '장조경제 3법'이기도 하고, '규제완화 3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맥주·통신비·차 수리비 분야에서 독과점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과 관피아들이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수가 기득권을 위해 경쟁촉진 그리고 규제완화와 장조경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쟁촉진'은 얼핏 생각하면 '보수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촉진'을 하면 '경제민주화'가 된다는 말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다.

특히 한국에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주요 공산품은 2-3개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중소기업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장점이 활성화될 수 없고, 갑을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경쟁촉진'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업무다. 그러나 공정위가 주로 수행하는 경쟁촉진 업무는 '행위 규제'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즉,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행위'가 정당하나 아니냐를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맥주·통신비·차 수리비에 관한 경쟁촉진 3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자체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제다.

시장구조 그 자체가 독과점 시장일 경우 당사 우리 눈앞에 불공정 행위가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구조적 불공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직구 열풍은 이러한 '구조적'로 불공정한 한국의 공산품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 출간됐다.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테제는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는 중상주의적 절대왕권에 의해 책정된 '정치적 독점가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시장과 경쟁촉진은 절대선(絶對善)도 절대악(絶對惡)도 아니다. 그러나 시장과 경쟁촉진은 '독과점'에 맞서 싸울 때 언제나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대안이다.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이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점은 당내 진박계의 위상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말발'도 더 이상 먹히기 힘든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박 대통령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유 의원과 경쟁한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둘 때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소한 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됐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 혹은 진박의 세력 축소는 지난해 황우여 전 대표가 정의화 의원에게 국회의장 선거에서 질 때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황우여 현 사회부총리가 당연히 국회의장에 뽑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났는데, 이런 '이번'은 그 이후 서정원 전 대표가 김무성 의원에게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진박이 밀리는 것은 더 이상 이번이라고 할

친박의 몰락?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유승민-원유철 조(組)의 승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의 승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현 정권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이 이번 경선에서 증명된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은 지난해 말 터진 정윤회 문건 과동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건의 진위보다는 청와대의 문건이 유출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넘어가려는 박 대통령의 모습과,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퇴진 요구도 목살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서부터 위기는 본격화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까지 출간됐다. 이 회고록은 남북 간의 접촉에서 일어났던 비화까지 담고 있어 현 정권이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4대강 문제나 자연외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성격까지 담고 있다고 할 때 역시 현 정권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회고록이다. 이런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측이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의도했다면 이 역시 지금 정권이 흔들리고 있기에 이런 '공격'이 가능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생각했다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공존을 모색하겠다는 후보보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새누

리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졌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지금쯤이면 차기 총선 공전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그런 여야 모두 똑같다.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줄서는 것보다는 김무성 대표 체제의 공고화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은 청와대가 더 이상 당에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구조가 돼 버렸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앞으로 청와대가 어떤 실수 아닌 실수를 했을 때도 여당에 적극적 방패막이 역할을 더는 기대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현상이 덜 나타나겠지만, 만일 요새같이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능가하는 역전 상황이 지속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지적이 아담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더욱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상황의 극복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껏 위축돼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사, 국민이 원하는 솔직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立春大吉(임춘대길)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기를

오늘의 [www.baekn.com](http://www.baekn.com)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은 양력 2월 4일 경이다. 올해는 바로 그날이다. 음력으로는 12월 16일이니 계동(季冬)의 기망(既望·열일새)이다. 동양에서는 이날 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봄이 선다'는 뜻으로 입춘(立春)이라고 불려왔다. 입춘, 입동을 자칫 시(時)으로 쓰기 쉬운데, 뜻을 알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입춘엔 입춘첩(立春帖), 입춘축(立春祝) 또는 춘축(春祝)을 대문에 붙인다. 설날 대궐에서 신하들이 지은 연상시(延祥詩) 중 우수작을 기동이나 난간에 붙이고 춘접자(春帖子)라고 불렀던 전통이 퍼져 누구나 입춘에 글귀를 붙이는 풍습이 생겼다.

대표적 문구로는 '임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가 많기를' '수여산 부여해(壽如山 富如海)수명은 산같이 재물은 바다같이 되라' '거전재 내백복(去千災 來百福)온갖 재앙은 다 가고 모든 복은 오라' 등을 꼽을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조선 정조 때 인쇄한 <은중경(恩重經)>의 진언을 붙이도록 나눠 준 일이다. 그 발음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움아아나 사바하인데, 물론 한자로 돼 있었다. <동국세시기>에 나온다. 입춘엔 액운을 물리치고 재수(財數)를 기원하는 '입춘굿'도 벌인다. 또 보리 뿌리를 캐

어 하루 묵었다가 입춘 날 그 생김새를 보고 점을 친다.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중간, 뿌리만 있으면 흉년으로 여겼다. 관북지방(함경남·북도의 총칭)에서는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빌기 위해 나무로 소를 만들어 길에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2월 4일은 2005년 국제 암 역제연합이 정한 '세계 암의 날'이기도 하다. 새봄맞을 생각을 하면서 건강도 챙겨야겠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암 예방의 날은 따로 있다. 3월 21일이다. 세계 소아암의 날은 2월 15일.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첫 사극 도전하는 신하균

배극남닷컴은 3월 영화 '순수의 시대'로 데뷔해 16년 만에 사극에 첫 도전한 배우 신하균을 만났다. 신하균은 사극 출연에 대해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은 장르라 신선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이야기는 많았지만 조금 다른 해석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시대에 비해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3월 개봉 예정인 '순수의 시대'는 조선 건국 초 왕위를 둘러싼 왕자의 난으로 기록된 1398년, 역사가 감추고자 했던 핏빛 순수의 기록을 담은 작품이다. 신하균은 극중 태조의 최측근인 정도전의 사위이자 왕의 사돈, 외적을 막아낸 총사령관 김민제로 분했다. 어미를 잃은 기녀 가희(강한나)를 만나 흔들리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이에 신하균은 "신경질 내면서 근육질 몸매를 만들었다"며 "자신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 오기가 생겼다. 힘든 마음을 곁집으며 근육질 몸매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캐릭터와 잘 어울리더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가족네임택세트

순금네임택세트

순금네임택

출원기념

스와로브스키보수기

오너봉

골프장갑

골프티모음

물도시

VIP 골프기념품

순금블마커

로고블마커

보석블마커

\* 동고에 개제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正論

복수초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다. 겨우내 얼어 있던 주변을 털어내고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봄은 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다. 해가 길어지고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 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식물들이 꿈틀거린다. 나무에 물이 올라 눈이 부풀고 풀은 새싹이 움튼다. 이어 봄의 절대적 상징인 꽃이 피어난다. 역시 '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화려하게 핀 꽃이다. 입춘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은 복수초(Adonis amurensis)이다.

복수초는 꽃이 핀 주변의 눈이 녹는다는 의미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눈색이꽃' 혹은 '얼음새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길게 찢인 눈을 해지고 올라온 복수초의 반짝이는 샛노란 꽃을 사진으로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하얗게 찢인 눈과 노란색 꽃이 자아내는 정경은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작품 소재가 됐다.

복수초(福壽草)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자생식물이다. 복수초는 이름 그대로 복(福)과 장수(壽)를 기원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강인함과 긴 개화기간으로 인해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한자로는 설날에 꽃이 핀다 하여 원일초(元日草), 꽃이 금으로 만든 잔처럼 생겼다 하여 측금잔화(側金盞花)라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설날을 상징하는 식물로 새해 덕담과 함께 복수초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 행복을 기원하는 식물답게 복수초의 꽃말도 '영원한 행복'이다. 복수초는 서양에서도 사랑받는 식물 중의 하나이다. 영어로는 아도니스라고 하며 이는 복수초의 속명이다. 아도니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이다. 아름다운의 상징인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나 사냥



안영희  
중앙대 식물응용과학과 교수

을 나가 멧돼지에게 물려 죽고 만다. 아도니스의 상처에서 흐른 붉은 피는 복수초 꽃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서양의 복수초는 붉은색으로 꽃이 핀다. 또 아도니스의 주검을 안은 아프로디테의 애달픈 눈물방울이 떨어진 자리에서는 하얀 아네모네가 피었다. 우리나라 자생지에서도 복수초 주변에는 아네모네속에 속하는 바람꽃 종류들이 늘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구 반대편의 아주 오래된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식물의 생태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의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기하다.

복수초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부터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눈을 해치고 처음 꽃망울을 터뜨릴 때에는 5cm 이내로 아주 낮게 자라지만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높이 30cm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자란다. 반짝이는 노란 꽃잎은 햇빛이 있는 한낮이나 맑은 날에는 꽃송이가 활짝 펴

지지만 날씨가 못거나 어두워지면 오므라진다. 꽃은 날씨가 수정에 필요한 곤충도 나다니지 않을 것이고 아직 추운 날씨에 귀중한 꽃술이 상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수초는 학술적으로 단순히 하나의 분류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질을 지닌 무리들이 자생한다. 개화 시기를 비롯하여 꽃의 크기나 형태, 개체의 크기, 꽃과 잎의 생장 특성 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생물에 있어 종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고유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유전자 다양성을 적절히 활용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품종을 육종하거나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복수초와 같은 우리 자생식물들을 흔히 식물유전자원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지역적으로 각기 다른 모양과 생육 특성을 지닌 복수초가 자생한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새로운 품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래 귀중한 자원개발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자생하는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이 중요하다. 이미 꽤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우리 자생 복수초가 불법으로 채취돼 일본의 도쿄 인근 원예시장에서 대량으로 판매된 일이 있었다. 야생 상태의 자생식물을 헐값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근절하고 빼어난 형질의 품종으로 개발해 고가로 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

이제 곧 눈 녹은 산과 들에 많은 자생식물의 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이다. 그러나 함부로 채취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하지 말자. 활용 가치가 높은 우리의 자생식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귀중하게 여기자. 현재의 자생 식물은 지금의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세대에서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을 뿐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남자에게 ‘재원(才媛)’은 성희롱

요즘 어딜 가도 유머감각이 뛰어난 남성이 인기다. 외모가 다소 '비호감'이더라도 우스개를 잘하면 여성들의 반응이 금세 달라진다. 그런데 유머와 응답패설은 문학 작품에 있어서 예술과 외설의 차이처럼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패설은 말 그대로 음탕하고 덕에서 벗어나는 상스러운 이야기다. 내 주변에는 교묘하게 선을 넘나들며 웃음을 주는 남자 후배가 있다. 가끔 응답패설 쪽으로 기울어 뒤뚱수를 때릴 때도 있지만 말이다.

성적 표현에 꽤 관대한 기자도 성희롱과 유머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다. 누가 들어도 낮 뜨거운 응답패설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유쾌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다. 후배라면 한 대 패기라도 할 텐데, 선배 등 예의를 갖춰야 할 상대인 경우 그 자리가 과할 때까지 가시방석이다. 물론 이들도 대놓고 성추행을 벌이는 자들에 비하면 예교로 넘길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건 힘을 지닌 자가 약자를 향해 벌이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이다.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또는 '성추문'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마 위에 오른다. 그럴 때마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음모론을 내세우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물어낼 수 없다. 결국 굴욕적인 모습으로 공든 탑에서 내려와야 했다. 대표적 사례로 강용석 전 의원을 들 수 있다. 강씨는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당적 제명 처분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씨는 10여년 전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자 "남의 집 여자가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무릎 꿇고 앉아서 있는 것"이라고 발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어디 이들뿐이랴. 이달 첫 공판을 앞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고위 검찰 인사, 모 시장 대표, 서울 대 교수, 배우 이병헌 등 손에 꼽고도 남



는다. 이는 젠더(gender)의 문제이자 인격의 문제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한자를 몰라 '성희롱'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겠다 싶다. 며칠 전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의 결혼 소식을 접하면서 불현듯 스친 생각이다. 손씨의 예비신랑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많은 언론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IT회사에서 근무하는 재원이다"고 썼다. 기사대로라면 손씨는 동성과 결혼하는 것이다. 손씨 입장에서선 정말 알토당토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재원(才媛)'은 한자 그대로 '뛰어난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재주가 뛰어나고 관참은 남자에겐 절대 '재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바를까? 그것은 바로 '재자(才子)'다. 그런데 이 말은 널리 사용되지 않아 쓰기가 영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엔 과감하게 한자말을 버리고 대신 순우리말 '들보나' '기둥'을 쓰자.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성폭력 근절이다. 그런데 이를 비롯하더라도 하등 사회 곳곳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결과가 뻔한데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성희롱을 저지르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남들은 운이 나빠 걸린 것이고 자신은 문제되지 않고 잘 넘어가리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듯하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 꼬이기 싫으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함부로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객석**

이정록 서울IR그룹 상무이사

### 급사등이 우리 오매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iskwon@

### 삼성과 퀄컴, 역전된 헤게모니

열다섯에 시집 와서  
열여섯에 아들 낳고  
여덟 명을 더 낳으니  
아홉 자식 우리 오매.

천정 엄마 공양하고  
술꾼 남편 내조하며  
자식새끼 키우느라  
급사등이 다 되셨네.

마흔다섯 홀로 되어  
내선 혼술 서리되고  
공공 앓은 방바닥은  
큰 바윗돌 되었구나.

일자무식 문맹 오매  
세상이치 눈치 구단  
순박하고 정직하니  
평생토록 무병 건강

아홉 자식 성실하여  
세상살이 제 몫 하니  
재벌 갑부 부럽잖고  
고관대작 따로 없네.

남은 여생 건강하여  
천수만수 누리시라  
자식 손주 염려 속에  
천국 가실 우리 오매.

퀄컴이 발열 이슈가 불거진 자사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10’ 홍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29일 반도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60여개가 넘는 제품에 스냅드래곤 810이 탑재돼 개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 고객사인 LG전자의 MCS사업본부 상무의 말을 인용해 “스냅드래곤 810 프로세서는 진보된 기능들과 압도적인 멀티미디어 성능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가장 진화된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면서 스냅드래곤 810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밖에도 샤오미, 모토로라, 소니, 오피오,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들의 인용 멘트도 대거 사용됐다.

퀄컴이 공식 입장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은 최근 불거진 스냅드래곤 810의 발열 이슈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냅드래곤 810의 발열 이슈로 다른 AP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전체 물량 80~90%에 자사 AP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나머지 물량에 퀄컴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모바일 AP 시장의 52.9%(2014년 기준)를 장악하고 있는 쿼터 높은 퀄컴이 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에 개선된 버전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삼성과 퀄컴의 AP 헤게모니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삼성이 자체 AP ‘엑시노스’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에 퀄컴의 위기가 커진 것. 삼성이 만약 AP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올려져 먹기’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퀄컴의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디지털 산업은 아날로그 산업 때와 달리 모든 부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기반 기술의 개발을 소홀히한다면 제품 전력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LG전자가 독자 AP인 ‘뉴클론’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바버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디 앤젤리스 화제작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쉽고 어두운 시기에도 꽃피우는 것은 항상 있다.

조금은 힘들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 처방전

#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바버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멈춰 서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디 앤젤리스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획기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 반스앤노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디 앤젤리스 화제작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쉽고 어두운 시기에도 꽃피우는 것은 항상 있다.

바버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 412쪽 | 14,500원

당신을 담은 좋은책 **그외**  
TEL 02)325-5676



날마다 편안한 날이 펼쳐집니다.



건강의 시작은 편안함입니다.

날마다 편하게

아연 보충용 제품

효모아연 + 복합효소(부원료)

건조효모에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을 함유한 제품으로  
부원료로 복합효소 300 mg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편하게, 온가족을 위해 선택하세요.



※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보세요.



DoM

비타민하우스



the Vitamin House

소비자상담실 : 1588-8529 www.vitamin-house.com





## 은행·증권 원스톱 서비스



## 금융업계 어떤 바람 될까



국내 첫 금융 복합점포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 Cover Story

## 금융 복합점포가 뜬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올해는 은행, 증권사 등 업권 간의 융합을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칸막이를 제거한 은행·증권 복합점포의 신설을 허용했다. 은행 입장에선 업권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에 복합점포 허용을 계기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인프라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은행·증권 복합점포의 성과를 검토한 후 보험사도 공동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NH농협금융그룹은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계기로 은행과 증권상품을 결합한 복합점포 1호점을 개설했다. 농협금융은 서울 광화문 복합점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에 총 10곳의 복합점포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복합점포는 있었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업무의 공동상담실을 칸막이로 구분하거나 개별출입문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다시 말해 BIB(Branch In Branch)나 BWB(Branch With Branch) 형태의 복합점포가 존재했으나 영업 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졌다. 예컨대 한 고객을 놓고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각각 업무를 해야만 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복합점포의 의미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로 최대 10여개의 복합점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합점포는 업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포다. 기존 결합점포는 업종 간 물리적인 공간을 구분해야 하는 데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 은행들로서도 대출 등 기존의 은행서비스만 고집했다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합점포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금상첨화 '태풍'

올 1월부터 '은행·증권 복합점포' 허용  
업권 경계 뛰어넘어 고객의 니즈 충족  
저성장·저금리시대에 새 수익원 창출

## 과유불급 '미풍'

펀드·보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  
비은행권 금융사 경쟁력 약화 불보듯  
부작용 최소화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하지만 복합점포를 신설하려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만만치 않다. 복합점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복합금융점포의 방향과 목표는 계열사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다. 그러나 시너지가 다른 뜻으로 해석되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제조업에서 계열사간 거래가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금융권에서도 시너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이른바 복합점포 갈등 원인이 '방카슈랑스 25%룰'로 압축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권의 점포를 포괄하는 복합점포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은행과 증권만으로 한정해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유는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보험업계는 복합점포가 활성화된다면 금융그룹의 계열 보험사들은 25%룰과 보장성보험 판매제한 등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로 인해 은행 점포에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방카슈랑스 25%룰이 무의미해지면 입점한 보험사는 자사 보험상품의 판매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신한생명, 하나생명 등 은행계 보험사와 달리 비은행 보험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보험사의 복합금융점포 입점에 대해 금융당국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 역시 복합금융점포가 탄생하면 계열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50% 룰을 어기는 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복합점포 활성화는 소비자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금융회사에는 비이자 수익 제고, 자금조달 비용 절감,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교차판매의 문제점인 자문서비스 활성화, 영업점 임직원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복합점포 활성화의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 “상품 다양성 확대” vs “보험산업 근간 흔들” 엇갈려



## ‘방카 25%룰’ 완화 논란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3단계 계획에서 방카슈랑스 25%룰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당초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의 밀어주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가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복합점포란 한 점포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상품을 원스톱으로 문의·가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점포를 말한다.

현행 방카슈랑스 25% 규제는 직영점포나 독립대리점(GA)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복합점포를 운영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완화하느냐, 현재 저축성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것을 보장성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저축성보험 상품과 함께 보장성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은행계 보험사들은 은행이 실질적 갑의 위치에 있어, 방카슈랑스 25%룰을 풀어줄 경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많이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 상황 등을 요구할

은행계 대 非은행계 보험사 갈등에 금융위, 올 복합점포 범위 보험 제외 공론화 과정 거쳐 단계적 포함기로 보장성보험상품 판매도 찬반 갈등

”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25%룰 폐지는 보험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복합점포 내 유리벽이 없어지면 같은 계열의 은행과 보험사가 한 공간에서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보험사 직원이 사실상 은행 기반의 복합점포에서 자사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고 점포 내 은행 직원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 입장에서 보면 복합금융점포 운영 목표가 계열사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인데, 그 시너지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계열사 간 시너지가 일감 몰아주기의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복합금융점포 도입에서 일단 보험사를 제외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서는 ‘은행+증권+보험’을 합친 복합점포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속 조치에

서 보험을 제외하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정했다.

복합점포에 보험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지만 은행 입장에선 상당 기간 ‘반쪽짜리 복합점포’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점포에서 예·적금과 펀드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는 올해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3단계 조치로 복합점포의 ‘25%룰’을 풀어주고 보장성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지금은 은행 방카슈랑스 영업으로 저축성 보험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금융업계에는 BIB(Branch In Branch)나 BWB(Branch With Branch) 형태의 복합점포가 있었으나 영업측면에서 보면 유명무실했다. 한 고객을 놓고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각각 영업을 해야만 했다.

강구귀 기자 kkk



국내 1호 복합점포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가보니

## “고객들 생소해하지만 수요 증가세”

은행·증권 칸막이 없애니 탁트인 창구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상담 진행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서울 광화문의 한 은행 점포를 찾았다. 엘리베이터는 1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은색의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로고가 반짝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회전하자 국내 1호 복합금융점포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가 보였다. 국내 첫 복합점포라고 대단할 건 없었다. 한 점포 내에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말 그대로 ‘복합 점포’였다. 출입구에 들어서자 왼쪽에 ‘NH투자증권’ 로고 아래 6개 증권 창구가, 오른쪽엔 ‘NH농협은행’ 로고 밑으로 2개의 은행 창구가 있었다. 은행과 증권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없었다.

380평 규모의 널찍한 점포였지만 대체로 한산했다. 은행과 증권 창구에서 각각 업무를 보는 고객이 한 명씩 있었고, 오른쪽 끝에 마련된 커다란 스크린에는 ‘대기인수 0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왼쪽에는 직원과 고객의 상담업무가 이뤄지는 상담실이 있었다. 상담실은 모두 8개. 그중 3개 방엔 ‘사용 중(In Use)’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임동주 지점장은 “오전에는 모든 방에서 상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각 상담실은 4~5평 정도의 규모로 대형 스크린과 소파, 액자 등이 있었다. 상담실마다 내부 분위기와 콘셉트가 달랐다. 크기도 인테리어도 달랐다.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담 시간은 고객에 따라 다르다. 바쁜 고객은 짧게는 15분만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한 상담을 원한다면 1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상담을 받기도 한다. 평균 상담 시간은 30분 정도다.

사실 이전에도 복합점포는 존재했다. 기존의 BIB



신제윤(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임종룡(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5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광화문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개점식’에 참석해 커팅을 하고 있다. 광화문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입점하여 고객 자산가 및 법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은행·증권의 종합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대현 기자 holjik@

(Branch In Branch)와 BWB(Branch With Branch)는 한 고객을 놓고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각각 영업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복합점포다. 그만큼 복합점포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는 크다. 하지만 한 달여 지난 지금의 복합점포 분위기는 다소 조용하다.

임 지점장은 “점점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복합점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오는 고객도 있고, 일부러 원스톱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합점포에 대한 개념이 고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선했 기자 byul0104@



# 남다른 '장그래 마인드' 경영진에 강한 인상

박현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트랜잭션뱅크본부 전무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자금관리, 증권서비스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등 트랜잭션 솔루션에 관한 전문가다. 박 전무는 1994년 미국계 대형 보험브로커 존슨앤하킨스(J&H-Johnson & Higgins Marsh)사를 통해 금융권에 들어와 출근 외국계 은행을 거쳤다.

△1990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졸업 △1998년 와튼스쿨 MBA 졸업 △1991년 베네수엘라 대사관 비서관 △1994년 존슨앤하킨스 입사 △1998년 한국 씨티은행 글로벌 트랜잭션서비스 부장 △2000년 네오플렉스캐피탈 이사 △2003년 한국 HSBC 이사 △2005년 SC제일은행 트랜잭션뱅크 이사대우 △2007년 스탠다드차타드 유럽 트랜잭션뱅크 이사대우 △2009년 스탠다드차타드 동북아시아 트랜잭션뱅크 상무 △2012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트랜잭션뱅크본부 전무

## ⑬ 박 현 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트랜잭션뱅크본부 전무

◇국제금융 전문가의 탄생 = 박 전무가 존슨앤하킨스에 들어와 맡은 일은 대기업 고객들의 국내외 보험 수요를 파악하고 런던·뉴욕 등에 소재한 해외 재보험사 또는 원수보험사와 연계해 최적화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였다. 마쉬사(Marsh)와 통합한 J&H는 당시 150년 전통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회사로 우리 금융시장 개방 흐름에 맞춰 진출했다. 박 전무는 “대만 여성인 아시아 지역 본부장을 포함해 그룹 경영진이 한국 여성인력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며 “학부 때 어문학을 전공하고 입사 전 대사 비서 경력에 전부였던 내게 과분한 업무와 연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회사 내에서는 고위직 임원들의 지원으로 경력 개발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전반적인 한국 사회 분위기는 여성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진출에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한국기업부(Korea Business Unit) 사원 시절 박 전무는 ‘여직원에게 맡길 업무가 아니니 남자 직원 바꾸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그녀는 “도와드릴 남자 직원 이 없으니 내게 말하라”며 영국 재보험사와 연계

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례적으로 여성이 복잡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력을 확인한 고객은 흡족해하며 박 전무의 상사에게 “박현주씨 승진시켜라”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노력의 양과 질이 남다른 ‘장그래 마인드’ = 지난 1997년 MBA 1학년을 마치고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서 인턴십 프로그램(Summer Associate)에 참여하게 된 박 전무는 석 달간 모 그룹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박 전무는 “기업재무관리 등 관련 경험이 취약했던 터라 맥킨지의 장장한 동료들과 고객사 프로젝트팀 사이에서 매우 고전했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팀에 민폐가 안 되려고 소위 ‘장그래 마인드’로 임했다”며 “남다른 노력밖에는 대안이 없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박 전무는 주말도 반납하고 종종 밤을 새워 조간신문이 배달되는 시간에 퇴근했다.

‘장그래 마인드’는 경영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 전무는 “발전 속도가 눈에 띄었는지 맥킨지 오피스에서는 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오퍼링 경영진이 참석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인턴에 불

인턴 때 맥킨지 경영진 프레젠테이션

“방향 틀렸다” 부회장 지적에 싸늘~

자료확인 다시 제안하며 발표 이어

부회장 “드물게 답대한 여성” 호평

국제금융 전문가로 경력 유지한 것은

많은 멘토 조언·경력 후원자 도움 커

“젊은 후배 양성 적극 동참할 터”

과한 내게 맡겼다”고 말했다. 비핵심 사업 부문 구조조정 제안이 주 내용이었다. 발표자가 미덥지 않았던 부회장은 첫 슬라이드에서 제동을 걸었다. 부회장은 자신이 기억하는 시장점유율과 차이가 있어 분석의 대전제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을 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졌다.

그러나 박 전무는 “당시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한 자료에 확신이 있었다”며 그룹 재무팀을 통해 그 자리에서 자료 확인을 제안했다. 그 결

과 데이터를 확인한 부회장이 발표를 속개시켰다. 부회장은 박 전무의 발표가 끝나자 “드물게 답대한 여성”이라고 호평을 했다.

◇후배 양성의 꿈 = 박 전무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경력을 유지하고 계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멘토의 조언과 경력 후원자들이 만들어준 새로운 업무 도전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러 박 전무는 “앞으로는 내가 받았던 과분한 도움들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며 “국내에서는 여성금융인 네트워크와 연계해 금융권 내 여성 인재 육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를 내 후배 양성 프로그램 지원도 다짐했다. 박 전무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내에서 런던 본사 및 홍콩 지역본부 근무로 쌓았던 글로벌 네트워크를 심본 활용해 해외 금융가에서 경력을 키워고자 하는 젊은 직원들의 커리어를 적극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활동이 우리 금융권의 해외 진출에 꼭 수반돼야 할 글로벌 탠트 자원 육성에 도움 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 전무는 “현재 SC 글로벌 그룹 내에는 약 130여명의 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김우람·사진/장세영 기자 hura@

## 워킹맘 TIP 3

### 업무와 깊이 있는 교감

**1** 우선순위와 시간관리  
워킹맘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주어진 순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확실히 나중에 미루거나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시간은 종으로뿐 아니라 횡으로도 흐른다. 흐르는 시간의 길이가 짧아도 깊이를 통해 시간의 넓이를 확대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 얼마나 깊이 있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풍요로운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업무도 마찬가지다. 장시간 이것저것 멀티태스킹(다중작업)보다는 그 순간의 깊이 있는 집중을 권한다.

### 가사·육아는 아웃소싱

**2**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가사 및 육아 아웃소싱(외주) 체제  
영화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를 보고, 워킹맘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 슈퍼맘에 대한 환상을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다. 이 영화에 비유를 하자면 운동화를 신고 달려도 일, 가정, 육아, 아이 학교 일까지 나 혼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여성은 없다. 슈퍼 워킹맘이 되려 애쓰다 좌절해 경력 단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어려울 때 큰 비용이 들더라도 가사 및 육아를 위한 과감한 아웃소싱을 권한다. 육아에 손길이 많이 가는 영유아기, 도우미 채용이나 부모님 사례 등으로 월급 받아 남는 게 없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버티도록 하자. 그 시기는 곧 지난다. 월급은 아웃소싱에 대한 사례로 다 쓰고 안 남아도 여러분의 경력은 쌓여 몇 년 후 복리 이상의 투자 수익을 가져다준다.

### 자신의 강점 키워 도전

**3** 약점 보완보다는 강점 극대화. 나이키 커브의 연속인 커리어(경력)를 그려갈 것  
중요한 보직이나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을 때 남성들은 잘하는 점 하나를 믿고 도전하고, 여성은 부족한 점 하나 때문에 아예 도전하지 않거나 발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다 잘하는 이는 없다. 본인의 강점을 믿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 커리어는 긴 스펙트럼이며 기울기가 중요하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나이키 커브처럼 업무 성과가 뚝 떨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본인의 강점 극대화와 분투하는 노력으로 다시 솟아날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지속해 나이키 커브의 연속을 그려가며 성장해 나가야 한다. 김우람 기자 hura@

HYUNDAI 현대미디어

Dr. 김시완

Dr. 유상우

의학기자 홍혜걸

거침없는 세 남자

닥터들이 만난다

HEALTHMEDI TV

삼DOC

굿DOC

금요일 밤 9시 방송

www.healthmedi.co.kr





## 여성 전용 보험 상품

| 보험사명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삼성생명   | 여성행복연금보험      | 여성을 위해 자기관리자금 등 도입                  |
| 동양생명   |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   | 연금 개시 전 질병 치료비 보장, 연금개시 후 다양한 지급 방식 |
| 교보생명   | 교보여성CI보험      | 여성 특정 질병 집중 보장, 여성 건강관리 서비스 등       |
| 한화생명   | 한화생명 여성 CI보험  | 암과 뇌출중 및 여성 특정질병 특약 평생 보장           |
| 푸르덴셜생명 | (무)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 여성 특정암 및 질병 보험료 변동 없이 평생 보장         |
| 롯데손해보험 | (무)롯데 온리 여성보험 | 생애 주기 맞춤형 설계, 특약으로 생활자금 지급          |

## ‘남편 사후, 솔로의 삶’ 소득·의료비 걱정 덜자

## 4050 중년여성 추천보험

평균수명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로 이른바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각종 질병에 노출된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0.74세로 평균수명과 평균 10.46년 차이가 난다. 평생 10년6개월은 병을 달고 산다는 뜻이다.

특히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의 경우는 노후 질병에 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훨씬 오랜 기간을 아픈 상태로 지내 그만큼 치료비도 많이 든다. 2012년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평균 1억1430만원으로 남성(9589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의료비는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 남성은 65세 이후 평생의료비 가운데 47.2%(4526만원)를 쓰는 데 반해 여성은 52.2%(5853만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은퇴 이후에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65세 이상의 남성은 34.9%만 다른 공적·사적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반면 여성은 53.5%가 이에 속한다. 특히 여성 중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선 40~50대 여성은 노후에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낼 경우를 대비해 연금보험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1인당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사의 연금상품과 달리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동양생명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연금보험인

1인당 생애의료비 평균 1억 훌쩍 넘어

65세 이상 절반이 기초연금으로 생활

동양·삼성생명 ‘연금보험’ 안정적 소득

연금 지급전 치료비·건강검진 등 제공

교보·한화·푸르덴셜생명 출시 ‘CI보험’

자궁·난소암·류머티스 등 특정암 특화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에는 여성 관련 질병 치료비를 보장받으면서 연금 개시 후에는 다양한 연금 지급 형태를 선택해 여성만을 위한 노후설계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보험업계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생존했을 때 연금을 증액 지급하는 ‘부부사랑연금형’을 신설했다. 연금 개시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최고 100세까지의 보충 지급기간 선택을 통해 배우자 사망 이전의 연금액을 보충기간 동안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역시 여성을 위한 연금보험 ‘여성행복연금보험’을 판매

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을 받기 전 일시금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자기관리자금’과 ‘연금개시 축하 여행자금’ 기능을 도입했다. ‘자기관리자금’은 보험료를 전부 내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40, 50대 여성의 경우 미용이나 건강검진 등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다.

연금보험으로 안정적 소득을 확보했다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신형 보험을 비롯해 건강·위험 보험상품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CI보험은 종신보험과 같이 평생 보장하면서도 중대한 질병(CI:Critical Illness)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50~80%를 미리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여성 전용 보험의 특징은 사망, 중대한 질병은 물론 자궁암이나 난소암 등 여성 특정암에서 임신·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만을 위한 섬세한 보장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여성CI보험’은 자궁암이나 난소암, 중증루프스 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류머티스관절염 같은 여성 특정질환을 집중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우먼케어서비스’를 통해 여성 생리주기별 건강관리를 해주는 우먼 사이클,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는 우먼 너싱, 암 등 중대질환으로 입원 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우먼 헬프 등의 여성 특별 서비스를 종신까지 제공한다.

한화생명의 ‘한화생명 여성CI보험’은 중대한 암과 뇌출중 등 치명적 질병 보장은 물론,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특정 류머티스관절염, 중증 루프스 신염,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여성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도 특약으로 평생 보장한다.

푸르덴셜생명의 ‘(무)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은 사망 보장뿐 아니라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여성 특정암 및 유방절제수술 등 성특화질환을 보험료 변동 없이 평생 보장해 준다. CI보험 외에도 롯데손보는 여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해주는 ‘(무)롯데 온리(Only) 여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 은행권 베이비붐세대 겨냥 노후상품

## “은퇴자금 맡기시면 高이자 쟁겨드려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는 은행권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그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또한 다양하다.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노후 대비 ‘미래설계 크레바스’ 패키지 상품은 스크레바스 연금예금 스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스크레바스 ARS펀드로 구성돼 있다.

5년 이내 단기 즉시연금 상품인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세전 이자율은 1년 기준 연 2.0%에서 5년 기준 연 2.4%까지다. 가입 금액 중 일부를 만기에 일시 수령하도록 지정하고 해당 만기 지정 금액의 이자는 매월 연금수령액에 포함해 받을 수도 있다.

KB국민은행의 ‘KB골드라이프 예·적금’ 패키지는 예·적금 모두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리금 수령기간을 각각 구분해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연 1.90%로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원금과 이자 지급기간

신한 ‘크레바스 연금예금’ 5년 고정금리 2.4%

우리 ‘청춘100세’ 거치없이 바로 원리금 지급

하나·외환 ‘행복...’ 10년 유지펜 보너스 금리

의 기본 이율은 연 1.60%다.

적금의 기본 이율은 적립기간과 원리금 수령기간에 따라 구분해 적용된다. 적립기간의 기본 이율(연 3.0%)은 3년 단위로, 원리금 수령기간의 기본 이율(연 2.5%)은 1년 단위로 각각 재산정된다.

우리은행은 노후 설계를 위한 통장과 예적금 상품을 결합한 ‘우리청춘100세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청춘100세예금’은 1년 단위로 이자율이 변동돼 최장 10년까지 다양한 이자와 원리금 지급 방식을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목돈을 거치기간 없이 매달 분할 지급받는 예금으로 신규일 다

## 시중은행 은퇴상품 (2월2일 기준) ※출처: 각 은행

| 은행      | 상품명                                                    | 기본 내용                                                                             | 특징                                                                                   |
|---------|--------------------------------------------------------|-----------------------------------------------------------------------------------|--------------------------------------------------------------------------------------|
| 신한은행    |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br>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br>미래설계 크레바스 ARS펀드  | 고정 금리로 매월 일정 금액 연금 수령<br>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역모기지론                                  | 세전 이자율 2.0%(1년)에서 연 2.4%(5년)<br>보충금, 설정비 부담 없음                                       |
| 국민은행    | KB골드라이프 예금<br>KB골드라이프 적금                               | 거치기간과 원금·이자지급기간 구분 적용<br>거치기간과 원금·이자지급기간 구분 적용                                    | 거치 기간 기본이율 1.9%, 원리금 수령기간 1.6%, 매년 재산정                                               |
| 우리은행    | 우리청춘100세예금<br>우리청춘100세적금                               | 목돈 거치기간 없이 달마다 분할 지급 받는 예금<br>월300만원 내 만기 1~2년 단기형과 3~9년 장기형 나눈                   | 1년단위 이자율 재산정, 최장 10년까지 다양한 이자와 원리금 지급<br>단기형 연 2.3~2.4% 금리, 장기형 연 2.5% 금리            |
| 하나·외환은행 | 행복knowhow통장<br>행복knowhow CMA(하나대투증권)<br>행복knowhow 연금보험 | 연이율 1.7%<br>10년 이상 유지하면 구간별 보너스 금리를 주는 연금보험<br>1년제 기준 이자율은 정기예금 1.977%, 적금 2.237% | 금리우대, 수수료 우대<br>금리우대, 수수료 우대                                                         |
| 농협은행    | 내생애 아름다운 예·적금                                          |                                                                                   | 만 45세 이상 0.1%p, 조부모·손자가 함께 가입하면 각각 0.2%p<br>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2%p의 우대금리, 총 우대금리 0.5%p |



음달부터 계약기간 중 매월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회전형의 경우 기본 금리 연 2.0%, 즉시연금형의 경우 기본 금리 연 1.8%를 적용한다. 거래 실적에 따라 연 0.2%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한다.

‘우리청춘100세적금’은 월 300만원 내에서 만기를 1~2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기형과 3년인 장기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형의 경우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대 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단기형의 경우 연 2.3~2.4%, 장기형의 경우 연 2.5%를 기본금리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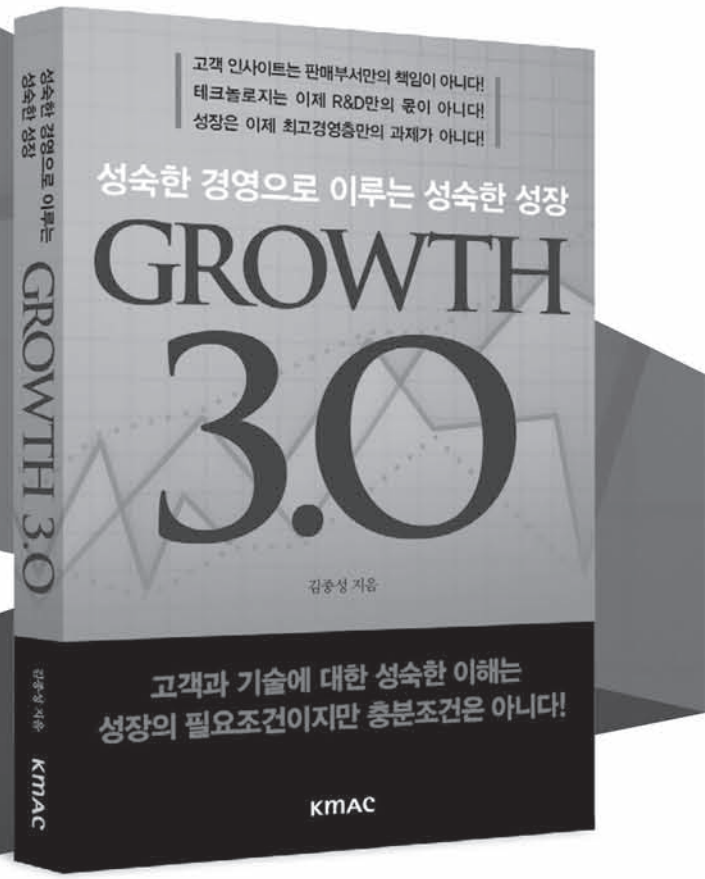
하나·외환은행 연금수급 통장인 ‘행복knowhow통장(하나은행·외환은행)’은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구간별 보너스 금리를 주는 연금보험 상품 ‘행복knowhow 연금보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의 할인 혜택을 주는 ‘행복knowhow 카드’도 판매한다.

농협은행의 ‘내생애 아름다운 예·적금’의 경우 1년제 기준 이자율은 정기예금 1.977%, 적금 2.237%다. 만 45세 이상 가입자에게 0.1%포인트,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가입하면 각각 0.2%포인트,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김우림 기자 hura@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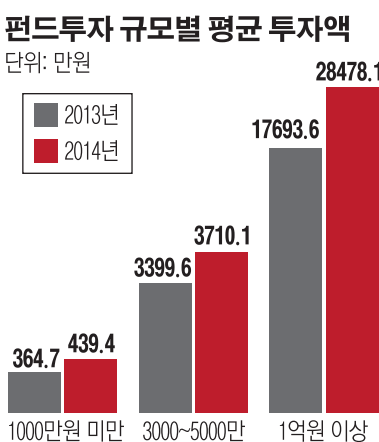
-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 더 많이 넣거나 발 빼거나 펀드 투자도 양극화 가속

작년 펀드투자 비율 줄었지만  
투자금액 오히려 17.7% 늘어  
역대 투자자 평균 '2억8078만원'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다만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펀드시장을 아예 떠나는 투자자도 늘고 있어 펀드 투자에도 양극화 바람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0월 13~24일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2530명(만 25~64세)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펀드 투자자 비율은 28.7%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39.0%)보다 10.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2년 투자자 비율(50.2%)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60대의 펀드 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13년 42%에 달했던 60대의 펀드 투자 비율은 21.2%포인트 감소한 20.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대 투자 비율도 33.3%에서 23.1%로 줄었다.

과거 투자 경험에 있으나, 더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방법을 더 선호해서'(43.0%),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어서'(13.9%) 등을 꼽았다.

주식시장이 수년째 박스권 장세를 지속하며 펀드가 '위험은 크고, 수익률은 낮음'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펀드에 가입하기로 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을 늘린 것으로 조사돼 이목을 모은다. 이는 펀드 수익률

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저금리 심화 환경에서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억원 이상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평균 투자액은 2013년 1억7694만원에서 2억807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펀드투자자의 평균 투자 금액은 2013년보다 17.7% 늘어난 585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펀드 투자기간은 평균 약 36개월로 조사됐으며, 가입 채널로는 여전히 '직접 판매사 방문'(78.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 펀드판매 포털사이트인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한 투자자는 1.9%로 조사돼 새 플랫폼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을 도와줄 독립자문업자(IFA) 도입 시 이용 의향을 묻는 문항에도 67.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측은 "현재 투자자 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펀드를 선택할 때 70% 독립투자자가 자문업을 이용한다고 밝힌 것은 판매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 원유관련 ETF 운용 '롤오버' 주의하세요

유가 상승폭보다 수익률 낮을수도

최근 유가 하락론이 언급되면서 원유 관련 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4일 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운용시 롤오버 효과로 인해 기초지수 및 ETF 운용성과가 해당 선물가격 성과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롤오버 효과란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함에 따라 차월물 재투자 과정에서 근월물과 차월물간 가격 차이로 비용(콘탱고)이나 수익(백워데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TIGER 원유선물(H) ETF의 경우 현재 유가상승 기대감으로 차월물 가격이 오르는 콘탱고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제 유가 상승폭에 비해 실현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대개 원유선물가격은 현재 현물가격과 보유비용, 선물만기시 가격 전망 등의 요인을 반영해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보유비용으로 인해 롤오버시 콘탱고가 발생하나, 가격하락전망이 우세한 경우 백워데이션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TIGER 구리선물을 제외한 TIGER 원유선물(H)·KODEX 은선물(H)·TIGER 금은선물(H)·TIGER 금속선물(H)·KODEX 구리선물(H)·KODEX 공선물(H)·TIGER 농산물선물(H)·KODEX 플드선물(H) 등 거래소에 상장된 8개 종목 상품형 ETF는 모두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선물로 운용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

## 삼성증권 "여행·보험... 中 업종대표주 투자해볼만"

오현석 센터장 '차이나 시크릿'

중국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적



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보다 중국 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1인당 GDP가 5만5000달러 규모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7000~8000달러

규모로 향후 어느 인더스트리가 좋아질지 판단하기 더 쉽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 국면, 내수주의 실적 개선, 자본시장 개방 등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해외 투자처로 중국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시장의 유동성 버블 우려가 있지만 주가 상승 속도가 부담되는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저평가는 여전하다"며 "과거 네 차례 상하이 A주 60% 상승했다(1년

내) 기간 중 밸류에이션 우려가 수반되지 않았던 것은 이번 2014~2015년 랠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집권 당시 상하이종합지수 최고치는 6092.07였고, 시진핑 집권 후 최고치는 3376.5(2015년 1월 16일) 수준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4314조원으로 15배 증가했으며, 2015년 예상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수익비율(PER)은 11.6배로 2007년 49.1배보다 낮다.

글로벌 유동성의 지원사격 가능성이 충분할 것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의 수급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오 센터장은 "시진핑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시중 자금의 직접 금융시장 이동, 자본시장의 국제화, MSCI 지수 내 상하이 A주지 편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 유동성 환경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윤주 기자 hyj@

신한금융투자 "우체국서 해외주식 사세요"



신한금융투자는 전국 2810개의 우체국에서도 증권 계좌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해외 25개국 주식매매가 가능한 '우체국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우체국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오픈을 통해 국내주식, 펀드, ELS/DLS, 국내외 채권, 랩, 신탁, 금 현물거래 등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 A주식(후강통)을 포함한 해외주식거래까지 하나의 계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은 우체국 거래 고객 또한 미국과 중국 등 해외국가에 대한 거래를 통합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투자

'스팍스'로 이름 바꾼 코스모운용

"아시아 대표 운용사 되겠다"

장재하 대표 새로운 비전 밝혀

일본·홍콩 계열사 시너지 노력



과거 자본업계 최강자로 명성을 날린 코스모자산운용이 사명을 스팍스자산운용으로 교체하고 재도약에 나선다.

3일 스팍스자산운용 장재하(사진) 대표는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운용사로 재도약하기 위해 사명 변경과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며 "대주주인 일본계 스팍스그룹의 일본, 홍콩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기관투자자 공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팍스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사명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고 2일부터 새로운 사명을 적용했다.

스팍스자산운용은 1995년 코스모투자자문으로 출범한 이후 2011년 말 운용사로 전환한 뒤 연기금, 기관 일일 자금 운용에서 두각을 보였다. 2005년엔 일본계 스팍스그룹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본 70%를 취득하며 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또 2009년엔 롯데그룹이 자본을 취득해 현재 29.9%를 보유 중이다.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과 스팍스그룹의 창립자이자 CEO인 아베 슈헤이 회장은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김경아 기자 kakim@

국내에 생소한 일본계 스팍스그룹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에 집중한다는 운용 전략과 투자 철학을 중시하는 금융기업이다.

장 대표는 "동등 수탁과의 75% 정도가 국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류였는데, 올해는 주식형 공모펀드를 통해 리테일 강화에 나서는 등 개인투자자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남들과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 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팍스와 제휴를 맺은 10년 전부터 미국, 중동, 홍콩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했고 현재도 중동 투자자금만 9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사명 변경과 함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진 만큼 아시아 주요 법인들과 연계해 해외고객 기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중 화폐 전쟁 초읽기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온다

슈퍼 달러, 'G2 파트너' 중국 자본 시장을 정조준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IMF의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2004년 10월)

## 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

# G2 전쟁

슈퍼 달러, 초엔저, 임박한 미중 화폐 전쟁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인가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14,800원 **부·키**



# 파도 타는 소리바다, 유료 음원서비스 닷 올린다

‘밀크뮤직’ 출시 4개월만에 월 이용자 200만 돌파  
삼성 스마트폰서 무료… 갤럭시 유저 업고 금성장  
프리미엄 서비스 연내 출시… 업계 1위 자리 노려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와 손잡고 선보인 ‘밀크뮤직’ 서비스가 출시 4개월만에 월 이용자 200만명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소리바다는 연내 프리미엄 유료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으로 업계 1위까지 넘볼 기세다.

4월 소리바다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출시한 밀크뮤직의 월 이용자가 약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유료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료 음악 스트리밍(streaming·실시간 전송 방식) ‘밀크뮤직’ 서비스는 갤럭시 유저를 등에 업고 음원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밀크뮤직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만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 없이 전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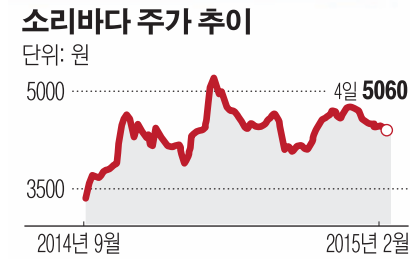
국내 음원시장 1위 업체인 멜론이 380만 곡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맞먹는 360만 곡의 음원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경

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다.

여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해 출시 6개월째인 밀크뮤직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원 시장 업계 1위인 멜론의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는 533만명, 2위인 지니(KT뮤직)가 277만명, 네이버 272만명, 비트 109만명 등이다.

소리바다와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를 연내 출시해 네오위즈인터넷과 멜론, KT뮤직 등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문제도 해결하는 ‘1석2조’를 노리고 있다.

밀크뮤직은 현재 음저협과 음원 저작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와 음저협의 문제는 계약서에서 한 가지 조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서비스를 위해 무료서비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문제가 된 것



이다. 삼성은 마케팅 일환으로 정당한 저작권을 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 삼성전자와 소리바다가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면 현재 음저협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출시 일정이나 서비스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료 가격과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세분화해 협의를 마친 뒤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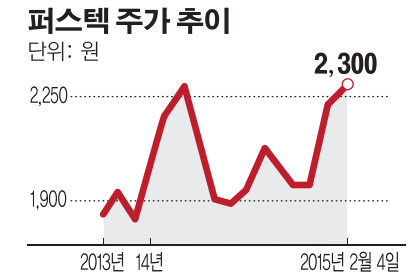
## 유콘시스템, 24시간 비행 무인기 ‘티로터’ 軍 공급

전기선 연결 신개념 드론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성공

드론(무인기) 생산 전문업체 유콘시스템은 신개념 드론인 ‘티로터(TRotor)’를 우리나라 육군과 공군의 국가중요보안목표 감시용으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티로터’는 대전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율비행로봇시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유콘시스템의 티로터는 전기선을 드론에 연결해 지상 약 50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드론이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드론의 최대 단점인 짧은



비행시간(약 20분)을 극복,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통신중계용, 주요시설 감시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신개념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며 특히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유콘시스템이 최초로 국내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유콘시스템은 ‘통합감시정찰시스템체계’

를 개발, 공급하는 체계업체로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약 10Kg의 농약을 탑재, 1만4000평방미터(약 4000평) 넓이를 방제할 수 있는 농약살포용 드론인 ‘리모콧터’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유콘시스템 관계자는 “군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드론이 정부산하기관으로 보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소형 드론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미가전협회(CEA)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55% 증가한 1억3000만달러(약 14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드론 판매량이 약 4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 포스코ICT, 340억 규모 ‘스마트 홈’ 시스템 구축

거제·남양주 아파트 1000여 세대

포스코ICT가 경남 거제와 경기 남양주에 건설중인 공동주택에 최신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포스코ICT는 경남 거제시 옥포에 건설되는 8개 동 576세대와 남양주 화도읍5개 동 466세대의 아파트에 ICT를 융합한 전

기와 통신, 기계설비 공급을 목적으로 한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사업규모는 거제도 약 200억 원, 남양주가 140억 원 규모다.

포스코ICT는 이번 사업에서 아파트의 통신, 전기, 주차관제, 공조,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미래형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급한다. 또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

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옥외에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고효율 장비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새롭게 건설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빌딩의 경우 ICT 기술을 접목해 건물을 통합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적극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정유현 기자 yhssoo@

## 손오공 ‘터닝메카드’ 어제 공중파 첫방

52부작 대작 국산 애니메이션  
완구 이어 모바일게임도 공개

손오공이 제작한 52부작 국산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가 3일부터 KBS 2TV를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터닝메카드’는 최근에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 중 보기 드물게 편당 26분, 총 52화로 제작된 대작이다. 실제 80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 바있다.

‘터닝메카드’는 미니카와 카드와 결합해

거대한 생명체로 변신하는 메카니컬과 이를 다루는 주인공 ‘잔이’ 친구들과 펼치는 모험담을 재미있게 그려낸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다.

다양한 모티브에서 탄생한 30종 이상의 개성적인 메카니컬은 화려하고 독특한 기술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2D와 3D 결합 방식을 통해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작업된 점 또한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다.

앞서 출시된 8종의 ‘터닝메카드’ 완구는 애니메이션 방영 전에도 불구하고 토이

저러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TV시리즈의 본격적인 방영과 함께 추가 8종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완구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추가작이 모바일 게임도 공개할 예정이라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기점으로 컨텐츠의 전개가 더욱 다양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오공 김중환 대표는 “손오공이 선보인 터닝메카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와 변신로봇, 카드게임이 결합된 제품으로 완구 구입 시 제공되는 쿠폰으로 모바일게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두 캐릭터 상품들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 쌍두마차가 되어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 공시돌보기

## 필코전자, 부실 자회사 턴다

필코씨앤디 보통주 100% 감자

자본금 79억5000만→0원으로

3자배정 유증…사업재개 나서

필코전자가 부실 자회사의 정리에 돌입했다.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던 부실 자회사들을 털어버리고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제조업체 필코씨앤디는 보통주 1590만275주를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

감자 비율은 100%이다. 감자 후 자본금은 종전 79억5013만7500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감자 기준일은 내달 26일이며, 이번 감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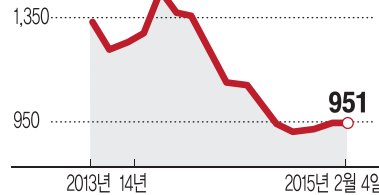
회사 측은 감자 사유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코씨앤디의 최대주주는 필코전자로 4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케이아이지홀딩스와 권오일 케이아이지 대표가 각각 0.6%, 1.2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대 주주는 지분을 39.08%의 에이티벤처스다.

필코씨앤디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 73억1753만원, 영업손실 20억 9803만원, 당기순손실 26억481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적자를 지

**필코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속하고 있다. 이에 자본잠식을 20%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필코씨앤디는 이번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실한 재무구조 상태로 대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 계속 작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이번 감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자 이후 유증을 통해 다시 자본을 확보할 계획이며 아직 제3자배정 대상자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코전자는 최대주주인 케이아이지가 자본 84%를 보유한 의류제조 및 판매 업체 코웰패션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합병 비율은 필코전자 대 코웰패션이 1 대 253이다.

이번 합병으로 필코전자는 매출액이 244.62%, 영업이익이 541.04%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7.61%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투자 귀재, 일성신약 또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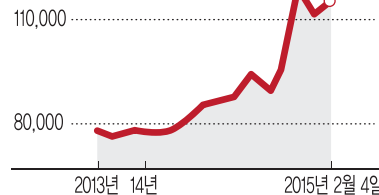
中 리우 회장 히말라야캐피탈

17만7775주…지분율 6.68%로

작년부터 40번 걸쳐 173억 매수

**일성신약 주가 추이**

단위: 원



‘투자의 귀재’블리우는 워런 버핏의 후계자 요청을 사양했다고 알려진 중국인 리우 회장이 이끄는 히말라야캐피탈이 일성신약의 지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저평가된 해외주식을 매입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로 유명한 이 회사가 일성신약의 지분을 꾸준히 매수하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히말라야캐피탈은 일성신약의 주식 17만7775주를 취득, 지분율이 6.68%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해 23일까지 40차례에 걸쳐 꾸준히 매수했으며 투입된 금액은 173억원에 이른다.

8만원 대를 횡보하던 일성신약의 주가는 히말라야캐피탈이 일성신약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8월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히말라야캐피탈이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 발표된 3월에는 소폭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히말라야캐피탈은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중국을 떠나 미국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로 성장한 리우 회장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동시에 졸업하고 투자회사에서 일하다가, 전 재산을 모아 직접 차린 회사다. 리우 회장은 지난해 2010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리우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세

운 히말라야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히말라야캐피탈이 일성신약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일성신약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투자고수로 블리우는 일성신약은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이 1400억원으로 3년 평균 영업이익의 67배나 된다. 보유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삼성물산 주식이다. 일성신약은 2004년 삼성물산 지분 2%를 단손 투자 목적으로 주당 평균 2만 4400원에 사들였다. 삼성물산의 3월 종가 5만8500원 기준으로 수익률은 139%다.

일성신약이 제약사보다 투자기업으로서 주목을 받는 데에는 ‘원조 주식 고수’로 내려오는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 덕분이다. 그는 KDB대우증권 전신인 동양증권에 창립한 ‘증권업계 1세대’로 알려졌다. 일성신약은 지난 2007년 주식운용수익으로만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실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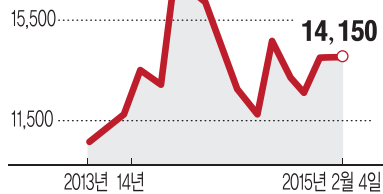
하지만 제약사로서의 성장성에 대한 제고는 필요한 시점이다. 일성신약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 제약사로서의 정체성에 의문 부호를 던지기도 한다. 항생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정유현 기자 yhssoo@



**차바이오텍 주가 추이**

단위: 원



## 차바이오텍, 배양 특허

지지세포 없이 배아줄기세포 배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은 ‘나노구배 패턴’을 포함하는 배양용기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적합한 표면구조의 스크리닝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복합 구배기술을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최적 배양 시스템 제품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특허기술은 배양용기 내에 지지세포의 역할을 하는 나노 크기의 기둥을 120nm 간격으로 촘촘히 배열하고 그 위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그동안에는 평평한 세포배양용기를 사용해 지지세포(동물 또는 인간의 피부세포) 위에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을 이용해왔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최적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 나이백, 펩타이드 특허

차과 감염균·아토피 항균·항염증

나이백은 치주원인균을 포함하는 치과 감염세균 및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세균에 항균 또는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기술을 미국특허청(USPTO)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의 명칭은 ‘항균 또는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다.

기존에 치주질환 치료를 할 경우 항생제를 이용하거나, 불소 화합물 또는 자동 치아 세척 기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현재로서는 스테로이드 처방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나이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에 개발한 항균, 항염 가능 펩타이드는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 등 치과감염의 치료 뿐 아니라, 아토피, 건선, 관절염 등의 염증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항염 기능성과 관련, 관절염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나이백이 진행하고 있는 관절염치료제의 사업화에도 전망이 밝은 것으로 업계는 내보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 쇼핑의 자유 신세계상품권

단채구매상당 백화점(02)3406-6900, 이마트(02)380-9664~9 구입처 전국 신세계백화점, 전국 이마트, SSG.COM,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세계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현금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 구입후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쇼핑]** 전국 신세계백화점, 전국 이마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제일모직, 엠포리오 아르마니 청담, 조르지오 아르마니 청담, 분더샵, 크롬하츠 청담, 돌체앤가바나 청담, 디젤 청담, 정관장 [외식] 스타벅스, 보노보노, 빙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베니건즈, 토니 로마스, 스파게티아(가산마리나아울렛점 제외), 뱅크스클럽, 아워홈, 피자헛, 세븐스프린스, 믹스앤베이커(코엑스점 제외), 메드포칼리(롯데월드, 김포공항점 제외), 비비고, 다들레이스(코엑스점 제외), 불고기브라더스, Ola 채넛 퀴진, 파미에스테이션 [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신라호텔,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MEA메리어트호텔,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노보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해운대 센텀호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신라스테이 [레저/문화] CGV(관교/광주터미널/죽전/센텀시티/영등포/대전터미널/의정부), 에버랜드, 휘닉스파크, 한솔오코밸리, 웅진플레이시도, 신세계센텀시티 스파랜드, 신세계센텀시티 아이스링크, 가평베네스트GC, 안양CC, 자유CC, 이포CC, 스카이밸리CC, 성남아트센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건강검진센터] 분당차병원(건강검진), 서울성모병원(건강검진), 의정부성모병원(건강검진), 가천의대길병원(건강검진), 강남을지병원(건강검진), 을지병원(서울-건강검진), 을지대학병원(대전-건강검진), 부산백병원(건강검진)

**SHINSEGAE e mart**